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제주 4·3 이후 '홀어멍 마을' 여성의 경험과 기억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염 현 주

2021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 4·3 이후 '홀어멍 마을' 여성의 경험과 기억

지도교수 고 성 만

염 현 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염현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백 영 경 ㊞

위 원 양 정 필 ㊞

위 원 고 성 만 ㊞

제주대학교대학원

2020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life and memories of women who lived in a ‘village of Holemeong’ after Jeju 4.3

Hyeon-ju Yeom
(Supervised Yy professor Sung-man Koh)

A thesis suY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21. 2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 문제

1) 연구대상 ····· 5

2) 연구방법 ····· 10

Ⅱ. 홀어멍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4·3과 여성 ····· 12

2. 홀어멍 연구 ····· 15

1) '호미마을'과 '홀어멍 연구' ····· 15

2) 연구의 의의 ····· 15

3. '홀어멍 연구' 의 공백 ····· 17

1) 공백의 전제 ····· 18

2) 피해성의 강조 : 무고한 피해자의 상징 ····· 22

Ⅲ. 홀어멍 마을에 사는 여성들

1. 성비불균형 공간에서의 관계 ····· 26

2. 남성권력의 양면성 ····· 37

Ⅳ. 다양한 연대의 구축과 활용

1. 마을의 다양한 층위 ····· 48

2. 다양한 네트워크 ····· 53

1) 친족네트워크 ····· 54

2) 이웃 네트워크 ····· 64

3) 마을 네트워크 ····· 68

3. 이합집산되는 복수複數의 연대 ····· 7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일본으로 밀항 다녀온 R과 호미마을에 남은 S사례 ····· 71
2) 대립되는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N사례 ····· 73
3) 다수 홀어멍들 사이에서 소수자였던 J사례 ····· 76

Ⅴ. 결론 ····· 80

[참고문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997-1998년, 4·3 진상조사규명운동이 진행되고, 제주 곳곳의 마을에는 많은 기자와 연구자들이 찾아와 4·3에 대해 묻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한 중산간 마을의 4·3 경험에 대한 연구가 1999년, 2000년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연구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이야기되지 않았던 4·3 '여성' 경험에 대한 연구이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4·3으로 남편을 잃고 살아가야 했던 홀어멍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 마을의 4·3 이전 경험부터 4·3 이후 경험을 다루었다. 4·3 폭력과 가부장제를 연결해 4·3으로 남편을 잃고 차별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홀어멍들의 고통과 그들이 삶을 영위함으로써 마을을 지켜내고 현재의 제주사회를 만들어낸 모습이 그려졌다. 이후 이 연구는 4·3과 여성, 4·3과 마을을 이야기할 때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연구가 되었다. 관련 내용은 꾸준히 여러 연구와 매체를 통해 유포되고, 재생산되면서 연구대상지인 '호미마을'[1]은 4·3의 비극을 보여주는 '홀어멍 마을'의 대표적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연구자는 현재 호미마을에 살고 있다. 육지의 대도시 출신이지만 출장 때문에 우연히 이주해 6년째 거주 중이다. 이웃의 할머니들과 같이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재미있었고, 통시와 똥돼지, 오소리 사냥 등 독특한 제주 문화가 신기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작은 공연을 하곤 했다. 또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할머니들 요청으로 노인정에서 같이 한글 공부를 하기도 했다. 옛이야기를 묻고 듣다보니 4·3 이야기도 조금씩 듣게 되면서, "4·3 때 남자 다 죽고 전부 홀어멍이여. 난 아방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허허허 웃지도 못하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지만, 공부를 시작하며 여러 4·3 연구와 호미마을 연구를

1) 선행연구에서는 4·3의 성격과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호미마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후속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 본고에서도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접하게 되면서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함께 한글공부를 하고 있는 현재 마을 내 최고령 할머니의 이야기는 왜 없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또한 연구자가 마을의 할머니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자신의 삶은 "4·3 증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의아함이 가중되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4·3 증언에 적합한 삶이라는 게 존재하나?' 고민 끝에 몇 분께 질문한 결과 얻은 답 중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4·3 홀어멍'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마을에 되풀이되었던 여러 인터뷰, 그리고 TV 방송 등을 통해 그들은 시대가 주목하는 여성의 경험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있었다. '4·3 당시 살아남은 소수의 남성'의 증언과, '4·3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왔던 이들에게 '그 경험'에 포함되지 않는 자신의 삶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인터뷰 중간 중간 "이런 말도 해도 되어?" 라고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할머니의 모습은,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되었다.

2. 연구 문제

4·3은 제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폭력과 학살의 기억은 제주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인명 피해는 4·3 이후 제주사회를 직·간접적으로 변화시켰다.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달하는 약 25,000명-3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지만, 젊은 남성의 죽음이 가장 많았다(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이후 제주사회는 일정 기간 동안 성비불균형 현상을 겪었다.[2)]

2) 아래는 이창기(1999)의 제주도의 연령별 성비(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추세를 정리한 표이다.

	1944년	1949년	1955년	1960년	1966년	1970년
15~19세	84.0	84.0	124.9	114.9	110.7	108.4
20~24세	60.4	67.1	78.2	111.4	119.5	115.3
25~29세	57.1	68.3	79.2	89.9	103.4	103.6
30~34세	57.8	66.8	74.3	69.3	97.5	102.0
35~39세	67.3	63.2	71.2	61.2	70.8	88.8
40~44세	75.2	65.6	61.4	65.3	61.8	68.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특히 남성 인명피해가 커 생존 남성이 몇 없다고 이야기되는 몇몇 마을에서는 극심한 성비불균형이 노동 형태, 경제활동, 마을 내 권력구도, 마을 구성원들의 관계 등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방식을 재편했다. 1999년, 이에 천착한 연구가 등장한다. '호미마을'이라는 중산간 마을을 배경으로 4·3 으로 인한 성비불균형 현상이 4·3 이후의 마을에 미친 영향을 남편을 잃은 여성-홀어멍의 삶을 통해 조명해낸 연구였다. 다수의 홀어멍과 소수인 생존 남성의 비교를 통해 진행된 분석은 4·3이라는 폭력 상황에서 가부장제 사회의 평화 속 일상에 스며있어 비가시화되었던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훨씬 강화된 형태로 드러남을 보여주었다(이정주, 1999; 2000).

'호미 마을 홀어멍'들의 증언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이후, 마을은 '홀어멍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폭력으로 남편을 잃었지만, 고된 환경 속에서도 홀어멍들끼리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며 자식을 키우고 마을을 재건해낸 홀어멍'의 서사가 구축되었다. 이는 '4·3 이후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에 끊임없이 거론되며 재생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홀어멍'의 삶은 4·3 여성의 삶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4·3 여성 연구에서 홀어멍의 대표성 획득은 4·3 역사인식의 다양화, 여성인권 신장의 흐름 속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동안의 4·3 연구에서 비가시화되어왔던 여성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홀어멍'이 가부장제 사회질서 속에서 남편 상실로 인해 차별받고, 고통받았던 내용으로 '홀어멍'의 경험은 균질화되었다. 현실세계의 다양한 홀어멍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고, '4·3 당시 남편이 죽거나 행방불명된'이라는 범주에 들지 못한 여성들의 이야기 역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마을에는 다양한 홀어멍들과 '홀어멍' 범주에 들지 않는 여성들 또한 4·3을 겪었던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 간의 관계 역동이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홀어멍 마을'이라 불릴 정도의 성비불균형 현상을 겪은 마을에서, 이들의 경험은 어떠했을까? 이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역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45~49세	84.5	70.0	64.8	59.8	64.6	61.9
50~54세	83.4	74.8	65.0	60.2	57.9	64.4
55~59세	80.0	72.2	66.9	60.0	57.3	56.2
제주전연령	85.5	82.1	88.7	87.4	90.9	92.1
전국	99.4	102.1	100.0	100.8	101.4	100.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마을 여성의 4·3 경험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호미마을 여성의 4·3 경험은 어떤 종류의 '홀어멍' 경험으로 일반화되어있다. 선행연구 당시 '홀어멍'이 주목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당시의 정치·시대적 배경과 연구사를 검토함으로써 추적한다.

둘째, 4·3 이후 마을의 성비불균형 현상이 호미마을 여성들에게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비불균형 현상을 '생존 남성'과 '홀어멍'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그 외의 다른 관점과 경험을 통합해 함께 조망함으로써 '홀어멍 마을'에 살았던 여성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셋째, '홀어멍 마을'에서 여성들은 '홀어멍 네트워크'를 이용해 살아간다.[3] 그렇다면 '홀어멍 마을'에서 여성들이 이용했던 '네트워크'는 그것뿐이었을까? 극심한 성비불균형이 발생한 4·3 이후의 마을이라는 시공간에서 여성들이 다종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질서의 역학관계 속에서 그들이 발견되거나 혹은 발견되지 못하고 소거된 경위를 밝히고 침묵된 존재들의 삶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홀어멍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가부장제 부계 사회에서 친족 네트워크가 끊겨 고립되었지만, '홀어멍들끼리 벗하고 의지하며 살았다.' 이는 '홀어멍 네트워크'로 명명되며, 4·3 이후의 지난한 삶을 살아왔던 홀어멍들의 생존전략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이정주, 1999; 2000; 김성례 외, 2001). 관련 내용은 Ⅱ장 연구사 검토를 통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조사지역

이 연구는 이정주(1999; 2000)와 김성례 외(2001)의 연구에서 '호미마을'로 표현되고 현재 홀어멍촌이라 이야기 되는 중산간 마을을 조사지로 삼는다. 호미마을보다 4·3 피해가 크고, 극심한 성비불균형 현상을 겪은 마을들도 여럿 존재하며, 북촌은 '무남촌'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는 해안/중산간, 동서남북 등 위치와 환경에 따라 문화가 다르고, 4·3의 맥락·피해 상황, 이후의 변화도 마을별 차이가 크다. 이 연구는 극심한 성비불균형 현상을 겪었던 모든 마을에 해당하는 객관적 현상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지향하기보다, 기존 사회가 파괴될 정도의 폭력이 만들어낸 한 마을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써 '홀어멍촌' 호미마을 여성들의 4·3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모집하기보다 '호미마을'을 조사지역으로 삼아 그 경험에 집중하려 한다.

호미마을은 조선 중엽에 형성된 마을로, 정의현으로 왕래하는 중심행로였으며 조선후기 귤 재배의 중심마을이기도 했다. 또한 '판관' 벼슬까지 올랐던 안씨 집안을 중심으로 과거 급제자 및 관직 진출자를 다수 배출했다. 제주 향청에 봉직했던 이들도 여럿 있었으며, 제주 향교에 출입하며 많은 유림이 배출되었다(○○읍지, 1991; ○○○리). 이러한 역사는 호미마을 사람들의 '양반촌' 자부심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했다. 유교 이데올로기가 한반도보다 약하게 작용했던 제주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호미마을은 타 마을보다 '유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마을이었다.

4·3 시기, 호미마을은 그 여파를 크게 받게 된다. 1948년 10월, 호미국민학교 운동장에 9연대의 일부 병력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31일 군인들이 잡아갔던 8명이 총살되고, 11월 초중순 즈음에는 마을 사람 몇몇이 한 집에 모여 떡을 만드느라 밤늦도록 불을 켜둔 채 일을 하고 있는데 토벌대가 집을 덮쳐 5명을 총살하고 불을 지른다. 마을 사람들은 인근 숲으로 대피하기 시작했다. 11월 21일. 토벌대는 마을의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소개령을 내렸다. 학살이 시작되었다. 소개령에 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 이웃 해변마을 소개민 수용소에 있던 여성들이, 고구마 줄기 더미에 숨어있던 남성이, 주민들이 대거 숨어있던 여러 동굴의 사람들이 연이어 총살당했다. 동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총살되기도 했다. 수많은 죽음이 이어졌다.[4)]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근처 해변 마을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거나 연고가 있는 친족들 집에 신세져야했다. 1949년 ○○○에 전략촌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곳에서 집단 거주하기 시작했다. 전략촌은 주민들과 무장대의 접근을 차단하고, 주민을 통제하며, 연대책임식 경비를 위한 집단 수용소였다(김은희, 2005). 호미마을 사람들은 돌로 성담을 쌓고, 보초를 서고, 마을을 재건하고, 밭을 개간하고, 군경의 수발을 들었다.

1954년, 통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마을 복귀 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전의 여러 개의 자연마을은 사라지고, 두 개만 재건되었다. 사람들은 숲에서 나무를 해 집을 짓고, 숯을 만들어 팔고, 먹고 살기 위한 밭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4·3 피해가 적었던 다른 마을의 남의 집 일을 하거나, 피해가 덜한 마을에서 농작물을 구입해 다른 마을에서 더 비싸게 판매하는 형태의 장사를 하기도 했다. 1960-70년대 감귤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곤궁하던 생활이 좋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한다.

(2) 연구대상

기존 연구의 추론에 의하면, 4·3 이후 복원된 마을의 70%가 홀어멍 가구였다.[5)] 이는 나머지 30%는 또 다른 형태의 가구였음을 의미하며, 70%로 표현된 홀

---

4) 2019년 발간된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호미마을의 4.3 피해는 다음과 같다.

○ 인명피해 (2019년 12월 기준)

총 희생자수	220	남성 희생자	176
		여성 희생자	44

○ 건물피해 : 소개 작전 과정에서의 마을 화재 및 호미국민학교 전소

○ 잃어버린 마을 실태

호미1			호미2		호미3	
가구수	주민수	희생자수	가구수	주민수	가구수	주민수
12	50	40	10	60	20	110

5) 1955년 당시 제주도 당국이 펴낸 『난민정착(4·3사건 피해상황조사)』에는 마을 복구 세대수가 총 148세대로 표기되어 있고, 주민들은 당시 성인 남자가 있는 가구는 30세대를 웃돌았다고 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멍 가구들 역시 일률적 형태는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당시 성인 남자가 있는 가구는 30세대를 웃돌았다.'는 선행연구의 증언은 30%에 해당하는 가구 중 다수가 4·3 생존 남성 가구였음을 추측케 한다. '생존 남성 가구'라는 표현 속에는 생존 남성을 가족으로 둔 여성들이 숨겨져 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서방 신 사름', '아방 이신[6] 사름' 등으로 불리곤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아방 이신 어멍'으로 표기할 것이다.

하지만 호미마을의 여성을 '홀어멍', '아방 이신 어멍'이라고만 명명해서 나누어 생각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남편의 유무는 가변적 사실이며, 남편이 있어도 남편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내에게 없는 것이 낫다고 표현되는 남편도 있는 등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일생을 생각했을 때, 시기 마다 다른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 4·3 당시 홀어멍이 되었지만 큰 각시로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족은 각시로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재혼했다가 다시 갈라서 홀어멍이 되기도 한다. 반면 남편은 4·3 당시 생존했지만, 이후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려 사는 경우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이주해 오랜 기간 부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찍 사망해 홀어멍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의 삶은 가족관계로 묶이는 남편의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홀어멍'이나 '아방 이신 어멍'이라는 호칭을 그녀의 고정된, 절대적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홀어멍'도, '아방 이신 어멍'도 한 여성을 칭하는 명칭에 불과하며, 가변성을 갖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미마을의 여성들을 기본 연구대상으로 한다.

주 인터뷰 대상자 J는 4·3 이전 혼인했으며, 생존남성을 남편으로 둔 여성이다. 선행연구에서 홀어멍 가구와 분석비교대상으로 삼았던 생존남성가구의 전형-4·3 이후의 혼란기를 남성이 갖는 능력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성장한 가구-[7]에

언했으며, 부락복구위원장 역시 가구의 70%가 홀어멍 가구라 증언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홀어멍 가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정주, 1999.)

6) 제주어 표기법 제 17항에 의하면 용언 어근의 끝 'ㅅ'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대로 적기 때문에 '아방 잇인 어멍' 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어감이 다소 낯선 감이 있어 본고에서는 '이신'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009, 912쪽.)
하지만 이후 구술 표기에 있어서 고유명사('홀어멍', '아방 이신 어멍', '족은 각시', '아방' 등)와 구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어미 활용 외 제주어는 가독성을 위해 표준말로 변환하여 표기하겠다.

7) 선행연구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갖는 권력으로 인해 생존남성 가구와 홀어멍 가구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을 지적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속한다.

그 외에도 홀어멍 연구에 대해서 증언이 가능한, 홀어멍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 가족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4·3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첫 연구계획에서는 당시의 홀어멍과 아방 이신 어멍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으나, 현재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인터뷰가 가능한 건강상태에 있는, 4·3 이전 혼인한 '아방 이신 어멍'은 마을의 최고령자인 J 뿐이고, '4·3 홀어멍'은 아무도 없다. 그 당시 청소년이었지만 4·3 이후 마을로 돌아와 혼인했던 그 아랫세대[8] 여성들의 증언을 함께 참고해 당시의 상황을 여러 시각에서 살펴보려한다.

선행연구의 주요 증언자인 홀어멍들과 같은 세대가 J 한 사례 뿐이라는 사실과 '홀어멍'의 증언이 미포함 되었다는 사실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랫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담 하나를 옆에 둔 이웃의 상황을 내밀하게 공유하던 것이 당시 마을 분위기였다. 또한 마을내혼이 지배적이었던 호미마을에서 마을의 홀어멍들은 그들의 언니이자 친족이었고, 그들의 아버지가 생존 남성이거나, 어머니가 홀어멍이었다. 그들 역시 마을 내 네트워크의 직·간접적 참여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홀어멍 연구의 관여자라 할 수 있기에 그들의 관점 역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 존재하던 공백을 발견해 공백이 생겨난 경위를 밝히고 공백의 존재를 포함해 당시의 상황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의 J를 주 연구대상자로 삼고, 당시의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Y, N, S, R, E, K, D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름	출생년도	성별	혼인시기	고향	조사일	장소
1	J	1925년	여	4.3 소개 이전	호미	2019.05.13. 2019.05.18. 2019.08.18. 2020.06.12. 2020.10.13. 2020.10.24.	자택

8) 선행 연구의 연구대상자였던 홀어멍들과는 5-20여세 정도의 차이가 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Y	1929년	여	4.3 소개 이후- 마을 복귀 전 다른 마을	호미	2020.07.16.	자택
3	N	1935년	여	4.3 이후-마을 복귀 직후	호미	2019.05.28. 2019.06.02.	자택
4	S	1940년	여	4.3 이후	인근 중산간 마을	2020.07.16.	자택
5	R	1940년	남	4.3 이후	호미	2020.07.16.	자택
6	E	1944년	여	4.3 이후	호미	2019.06.02.	연구자 자택
7	K	1940년	여	4.3 이후 - 상처한 남편과 재혼	다소 거리가 있는 해변마을	2020.06.13.	자택
8	D	1941년	여	4.3 이후	호미	2020.07.18. 2020.11.10.	자택

J(1925년. 현 96세)는 4·3 이전 혼인해 기혼자 상태로 4·3의 시기를 보냈으며 생존 남성을 남편으로 둔 '아방 이신 어멍'이다. 현재 마을 내 최고령이자, 4·3 이전 혼인한 유일한 여성이다. A의 남편은 마을에 몇 되지 않는 젊은 4·3 생존 남성이며, 4·3 이후의 혼란기 속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마을 정치 지형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는 '생존 남성 가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Y(1929년, 92세)는 4·3 이후 함덕으로 소개되었을 때 혼인해서 마을 복귀 허가가 떨어진 뒤에 기혼상태로 복귀했다. 남성 부족 현상으로 2살 연하를 신랑으로 맞이했으며, 4·3 당시 남편이 얻은 병증과 평생 함께 살았다. 언니는 4·3 당시 토벌대에 의해, 남자 형제들은 4·3의 간접적 여파로 모두 죽고, 가장으로서 친정을 건사했다. 자매들만 남아 집안을 바로 세우지 못했던 친정의 상황에 아직도 한을 품고 있다. 4·3 어버이상을 수상했다.

N(1935년, 현 86세)은 4·3 당시 청소년으로 아버지가 고령의 생존 남성이었다. N은 4·3 이후 결혼했으나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이 육지로 떠나 7년간 부재했다.

S(1940년. 현 81세)와 R은 부부로, 이웃 중산간 마을에서 시집을 왔다. 고향은 4·3 피해가 적었지만, 장손이었던 R과 혼인하면서 호미마을의 4·3 이후를 함께 겪으며 살아왔다. 혼인 후 R은 일본으로 밀항한 후 10년을 살다가 돌아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1940년. 현 81세)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를 예비검속 당시 잃었다. 생존한 조부, 누이동생 세 가족이 살다가 누이는 식모살이를 위해 육지로 이주하는 가족의 해체를 겪는다.

E(1944년생, 현 75세)는 아버지가 4·3 생존 남성으로, 4·3 직후 이장을 역임했다. 딸 입장에서 해석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K(1940년. 현 81세)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해변마을이 고향이다. 고향에서 고향 남자와 혼인을 했다가 이혼한 상태에서 권당의 중신으로 호미마을로 시집오게 되었다. 호미마을 남편 역시 부인을 잃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K와 남편 모두 두 번째 결혼이었다.

D(1941년, 현 80세)은 호미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4·3 당시 큰 오빠를 잃었다. 인근 해변마을 출신인 둘째 언니의 남편이 행방불명되면서 언니는 홀어멍이 되었고, D의 부모가 남편을 잃은 언니와 조카를 거두어 함께 살았다.

연구 대상자는 이렇게 총 8명이지만, 이들의 구술에는 자신의 부모, 이웃이 겪었던 일들도 함께 거론되어진다. 그들의 경우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 분들이 대부분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구술에 등장하는 분들의 이름은 알파벳 대문자가 아닌 가명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2) 연구 방법

구술사란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와 구술자와 역사가의 대화를 통해서 쓰인 역사로, 탈근대적·탈식민지적 역사연구를 지향한다. 민족, 국가, 사회라는 거시적인 주체에서는 드러날 수 없었고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내에서 발성될 수 없었던 개인적·집단적 경험과 기억들을 양지로 끌어 올리는데 효과적인 방법론이다(윤택림, 2019). 4·3연구에서는 구술증언을 통해 진상규명 작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으며, 국가폭력을 향한 대항담론으로서 구술사가 시도되면서 역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함한희, 2010b).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구술 증언, 구술사 연구는 과거 역사에 대한 증언이라는 특성에 주목하고, 과거 체험에 대한 현재의 기억이라는 특성에는 주목하지 않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계를 보인다. 이로 인해 구술내용에 대한 복합적 해석 작업이 생략되거나 단순화하게 되고, 과거 구술이 지나간 체험을 단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개 과정에서 쌓이는 체험과 구술 상황에 의해 서사적으로 조직되는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또한 구술된 내용의 선후관계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로 바뀌거나 구술된 표현을 윤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구술사는 조사 주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언자로부터 구술증언을 받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함한희(2010a)는 초기의 조사 사업과 국가주도의 진상조사를 비교하면 전자를 진행했던 주체들은 4·3을 항쟁으로 규정했고, 후자의 주체인 정부는 피해상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급급해, 4·3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동시에 4·3 진상규명이 희생자에 대한 조사로 끝나는 것, 민중항쟁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 모두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며 제주 도민의 경험을 중시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두껍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술사의 특성상 한 연구대상자의 구술은 절대적 팩트가 아니라, 그의 맥락에서 맥락화된 내용이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구술을 통해 팩트를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해 맥락을 읽어내고 그를 통해 당시 마을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증언 충돌, 기억의 정형화로 인한 증언의 변용, 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따른 표현과 인식의 차이 등을 수차례 경험했다. 그럼으로써 구술자 개인의 구술을 절대적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술자의 구술을 경청하고, 구술자들의 집안, 공동체 안에서의 입지(노인정 안에서의 관계 역동), 개인 성향 등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전체 상을 풍부하게 이해하고자 했다.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연구자는 마을에서 연구대상자들과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으며, 이들과 이미 맺고 있던 일상적 관계를 통해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2019-2020년 진행된 조사 과정에도 일상적 관계의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 면담○회라고 표기할 수 없는 일상의 대화, 평소 노인정에서 느껴지는 관계 역동들, 분위기로 파악되는 내용들은 직접 문자화 되어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논문을 전개하고 분석하는데 녹아 있다.

'육지 아이'지만 어느 정도 마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연구자는 얽히고 섞혀 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마을의 관계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연구대상자들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연구대상자들이 편하게 마을의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끔 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나 참, 별 말 다 말해진다.”, “너한테 첫 번으로 하는 말이다.”, “알아도 모르는 체 하라.”,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말하곤 했다. 어떻게 보면 별 일 아니라 느껴지는 일에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곤 했는데, 이는 그만큼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는 의미와 그만큼 말하고 싶었다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 고통 받고 힘들었던’ 홀어멍들에게 주로 주어졌던 4·3 증언의 기회는 주류 증언자가 아니었던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현재, 차례가 돌아온 셈이지만, 이미 진척된 조사로 인해 더 이상의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마침 연구자와의 인터뷰 요청과 그 욕구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셈이었다. 대상자들은 인터뷰 과정, 인터뷰의 이후 활용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반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과 대화의 과정이었다. 또 혼자 살면서 적적하던 시점에 만들어지는 연구자와의 만남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했으며, 연구자의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 또한 반영되어 있었다.

Ⅱ. 홀어멍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4·3 과 여성

4·3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왔다. 4·3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은 ‘미처 생각되지 못한’, ‘인식하지 못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공적 역사는 남성들의 역사로 이루어져왔고, 많은 학문의 기준이 남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 여성 연구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연구 자체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 젠더적 시각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4·3 여성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적고 크게 다루어지지 않아 계속 되어야할 연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는 주민 희생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여성이 주변화되고, 여성 경험은 폭력의 참혹함을 설명하는 사례로만 제시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계에서도 4·3의 원인규명이 냉전 관점의 연대기별 분석으로 이루어지면서 남성들의 활동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며 여성주의적 관점은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권귀숙, 2014).

여성·젠더적 관점의 부재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4·3과 여성을 연결해 고민했던 연구자들이 존재한다. 개괄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먼저 4·3 당시 여성에게 일어났던 폭력과, 그 폭력을 속에서 4·3 이후를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김성례(2001)는 4·3 을 성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4·3은 새로운 반공국가의 건설을 위해 일어난 제주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으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성정치 기술이 전개되었다. 제주도민은 빨갱이라는 집단이자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생존 주민들은 빨갱이 인종을 재생산할 수 있는 빨갱이의 몸으로 대상화-여성화되었다. 여성화된 기표로서 몸은 국가권력의 장소이자, 국가폭력 수행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었다. 이 속에서 특히 여성은 빨갱이로 인종화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국가폭력의 성정치 기술을 가시화하는 구체적 사례이자 실체로, 일상의 가부장적 폭력까지 덧붙여진 삼중의 고통을 받았다.

김은실(2018)은 여성 중에서도 4·3 홀어멍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경험을 엠베베의 죽음정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석한다. 죽음정치란 탈식민 국가 건설과정에서 행사되는 생체권력으로,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만 하는가를 명령하는 권력인 통치와 결합해 통치로서의 죽음정치가 이루어진다. 4·3은 죽음을 통한 반공통치제제의 구축과정이었고, 젠더는 국가 생산과 신민의 재생산을 연결시키는 폭력적인 동학의 중심에 있다. 그는 4·3홀어멍들의 신체에 이러한 정치가 어떻게 기입되었고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정치적 장으로 구성되는지 분석한다. 4·3홀어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들의 침묵의 기술은 레드 콤플렉스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 제주에 대한 육지의 선입관 등이 4·3피해 여성들의 '말하기'의 정치학과 몸/젠더 정치학에 개입하고 있음을 밝힌다.

초창기의 많은 연구들은 여성이 입은 4·3 피해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인권유린의 측면에서 고발하고 문제제기 하고 있다.

오금숙(1999)은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이 되지 않아 여성인권 피해 상황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을 비판하며 4·3 여성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고문치사, 성폭행 사례, 토벌대와의 강제 결혼 사례, 살아남은 여성들의 수난(생계 유지, 연좌제, 호적, 사회적 편견과 멸시 등) 등을 증언을 통해 정리하고 있으며, 여성인권, 올바른 성의식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회 구조와 냉전 이데올로기 아래 여성은 더 고통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정숙(2003)은 남성중심적 4·3의 역사 기술을 비판하며 여성들이 남성과 다르게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경험을 해방-4·3 발발 시기까지의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 국가폭력으로 자행되었던 여성 인권 유린 사실, 4·3 이후 가장으로 살았던 삶과 생존전략으로 재가를 택했던 여성의 역사를 정리한다.

권귀숙(2011)은 '제주 4·3 여성사'라는 제목으로 4·3 시기의 수난을 생존자로서 가족의 죽음을 겪은 상처, 남성 부재로 인한 수난, 가족으로서의 수난, 어머니로, 딸로, 여성으로 상처받고 수난받은 사례들을 정리했다. 또 4·3 이후의 삶과 역사는 재건과 노동,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연좌제와 호적 문제 등의 제도로 인한 수난으로 분류해 서술하고 있다.

한림화(2018) 역시 1980년대 초반부터 10여년 동안 다녔던 마을 현장 조사를 토대로 여러 성고문, 대살 등의 사례를 다루고 4·3 이후 여성들의 마을 재건, 공동체 복원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박상란(2019)은 여성들에게 가해진 강압에 의한 관계 경험을 '순경 각시'의 사례로 소개하며 성적/정치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순경 각시'는 성폭력의 사례와 다름없음을 고발한다. 이 연구들은 여성 인권 유린에 주목함으로써 4·3으로 인한 여성 피해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이 겪었던 수난, 인권피해상황을 중심 주제로 삼아 드러내면서 그와 동시에 적은 비중일지라도 여성들이 가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던 항쟁 경험, 사회적 경험, 주체성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계보를 이어, 지금까지 4·3 연구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때 그들의 '삶'과 '일상'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속의 모습을 조망할 것이다.

2. 홀어멍 연구

1) '호미마을'과 '홀어멍' 연구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한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는 이정주의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이 논문의 요약본이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2000년 『제주도 연구』 학회지 17권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여러 차원에서 변주되는데, 김성례, 유철인, 김은실, 김창민, 고창훈, 김석준, 2001, "제주 4·3의 경험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韓國文化人類學』, 34권에도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홀어멍에 관한 연구로 김은실의 "4·3 홀어멍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가 2016년 『한국문화인류학』 49권 3호에 수록되었으며, 이 논문의 변형본이 2018년 『4·3과 평화』 18호에 "국가폭력과 여성: 죽음정치의 장으로서의 4·3"으로 게재되었다.

2) 연구의 의의

1990년-2000년대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영향으로 '마을', '여성', '구술사' 등의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정주의 '호미마을 연구'는 이러한 학계의 새로운 움직임과 4·3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되며 각 마을의 피해상황을 듣고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발표되었다. 이 연구가 진행·발표될 당시 4·3 여성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행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한 마을의 4·3 전개과정부터 이후 마을 재건에 이르는 과정을 여성의 입장에서, 긴 호흡의 현지 조사를 통해 재구성해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연구가 조사되었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97-1998년은 금기시되던 4·3 관련 증언들이 가시화되던 시점이기는 했으나, 마을 안에 죽음과 삶, 가해와 피해라는 복잡한 관계가 서로 얽혀서 침묵하고 있던 당시 조사가 쉽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아직도 공공연히 드러내지 못하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내밀한 갈등구조와 그 상세한 내용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이후 이루어진 마을 관련 연구가 북촌(강민구 외, 2012), 하귀(하명실, 2017)를 다룬 연구 두 개 뿐이라는 사실은 여러 구성원의 증언을 듣고 입체적으로 연구를 구성해야 하는 마을 연구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 고생담으로 쉽게 취급되는 여성의 4·3 이후 삶의 이야기를 마을의 구조와 연결시켜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점, 4·3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1차적 인권 피해를 넘어서 4·3 이후의 삶까지 연결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점, 4·3이 개인의 일상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 역시 연구가 갖는 의의라 할 수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도 연구는 회자되고 있다. 특히 강조되어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 이후의 사회에서 여성이 겪은 고통을 설명함과 동시에, 여성을 4·3 이후의 마을·사회 재건과 복원의 주체로 설정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표현해냈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로, 피해자로만 그려지기 쉬운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들은 다른 연구에도 존재한다. 간과되었던 여성의 저항과 항쟁 경험을 다루는 연구(이정숙, 2003)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소수 여성의 활동이라는 한계와 4·3의 성격 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깊게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4·3 이후의 삶을 무너진 사회의 재건이자 복원의 과정으로 설정하고 여성이 그 주체가 되었다는 관점은 다수의 여성 경험을 포괄하며 일상을 지켜왔던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주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했기에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재생산되고 있다.

둘째, 4·3 이후의 제주 사회를 재건·복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로 노동과 유대의 여성 연대인 '홀어멍 네트워크'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홀어멍 네트워크'는 현재의 4·3 여성 연구와 한국전쟁 여성 연구에서도 줄곧 인용되는 부분이다. 여성은 줄곧 가족 관계 안에서 표현·재현되어왔고, 여성들의 관계 역시 갈등이 부각되곤 했다. 이에 반해 '홀어멍 네트워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어난 '여성 연대'의 흔치 않은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구 이후 4·3 여성 경험을 이야기함에 있어 '제주 사회와 마을 재건의 주체'와 '홀어멍 네트워크' 라는 프레임이 설정되었다. 이는 최근의 저작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여민회에서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주 여성들의 4·3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구술채록 작업은 "국가와 가부장적 폭력에서 끝내! 가까스로! 죽지 못해! 살아남아 가족을 껴안고 마을과 제주사회를 재건한 주체로 4·3과 여성을 접근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3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다. 2019년 출판된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은 70년이 지난 현재 지금까지는 배제되었던 일상 속 여성들의 삶, 생활의 이면을 더 드러내고자 했고, "일제 강점기 이후 4·3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취약한 존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인한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여성, 격동의 제주 근현대사를 관통한 우리 어머니들의 체험과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허영선의 산문집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겠지만』에서도, 여성을 다룬 장이 따로 편성되어 비슷한 논조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저작들은 '국가와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 가려진 여성들의 '일상'과 '삶의 경험'를 발굴하고 '재건과 노동'을 매개로 그녀들의 역사를 '가족과 마을'로 결부시키고 있다. 이 프레임의 시작에는 '호미마을 연구'가 있었다.

3. 홀어멍 연구의 공백

재건된 마을의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홀어멍 가구였다는 선행 연구의 기록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4·3 이후로는 몬딱 홀어멍이라."라는 증언은 당시 마을의 인구비율에서 홀어멍이 다수였음을 보여준다.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 속에 홀어멍이 조명되고 '다수'인 홀어멍이 호미마을 여성의 경험을 '대표'한다는 인식[9]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당연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홀어멍의 부각으

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는 '홀어멍'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제목은 호미마을의 '여성' 경험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본문 내용에서도 여성은 '홀어멍'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비-홀어멍'의 삶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서 ‘홀어멍’ 범주에 속하지 못한 여성의 이야기는 공백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확장을 위해 먼저 ‘당연함’ 속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몇 가지 전제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1) 공백의 전제

(1) 고통과 피해의 위계

마을에서 연구가 진행될 때는 언제나 ‘누구의 증언을 들을 것인가.’ 대상 선정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폭력을 가시화시켜 국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운동이 이루어지던 1990년대 증언채록의 핵심은 피해의 파악이었다. 주로 ‘피해 상황’을 공식적 언어로 잘 서술할 수 있는 남성들이 증언자로 선택되었고, 피해 상황 보다 ‘일상적 경험’을 증언하는 여성 증언자들의 증언은 ‘기록할 만한’ 증언으로 선택되기 어려웠다(권귀숙, 2014). 호미마을에서도 공식 증언자 역할은 마을 내 극소수로 일컬어진 생존 남성 중 한 명이 맡았고,[10] 몇몇 여성이 그의 보조 증언자 역할을 했다. ‘폭력 상황에 대한 공식적이고 자세한 표현’ 외에 증언자 선정 및 증언 채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의 정도였다.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피해 부각을 위한 측면에서 ‘큰 피해를 입은 누군가’의 증언이 중요해진다.

여기에는 ‘고통과 피해의 위계’라는 사고가 작용한다. 끊임없이 피해를 ‘발굴’하고 ‘증명’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고통과 피해의 위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피해는 과연 계량화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미시적, 가벼운 피해와 구조적, 거시적, 심각한 피해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타자화된 시각이 작동한다. 이러한 시각은 피해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당연시 여기게 하는 위험성을 갖고

10) 그는 1999년 방영된 MBC 방송 프로그램인 “4 · 3 증언, 나는 말한다.”의 중심 증언자로 증언하며, 4 · 3 연구소의 증언집에서는 “호미마을의 상징 ○○○” 이라는 수식어까지 달게 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다.[11] '고통과 피해의 위계'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여성의 피해는 '성폭력' 및 '남편의 죽음'이었다.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제외하고,[12] '4·3으로 인한 여성 피해'는 '남편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홀어멍' 사례로 구성되었다. 호미마을에서 4·3 여성경험은 '남편의 상실'이라는 고통-피해의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이 기준에는 여성에게는 남편의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자 피해라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2) 부인에게 공유되는 남성 권력

'전쟁·폭력 이후-성비불균형-가부장제'를 연결해 거대한 폭력으로 한 번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는데 가부장제라는 권고한 남성 권력의 구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살아남은 소수의 남성'과 '남성권력을 잃은 여성'의 구도를 기본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성권력을 잃은 여성인 홀어멍은 남성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겪으며, 남성가구와 점점 커지는 경제적 격차 속에서 고통 받았고,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형성된 상속제도와 친족제도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잃게 되어 극심한 고통과 궁핍을 겪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여성들과 생존 남성의 구도에는 '남성 권력(혹은 남성 권력으로 취득한 이익)은 부부관계에서 공유될 것이다.' 라는 사고가 함의되어 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은 남성의 권력을 공유하는 존재였다. 홀어멍들은 구하기 어려웠던, 집을 짓고 밭을 갈 수 있는 남성 노동력을 남편이 있는 여성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글을 알고, 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던 남성의 경제력을 그들과 한 가구였던 여성들은 함께 공유했다.' 이러한 암묵적 사고 하에 남편이 있어 '정상 가구'에 속했던 여성들은 홀어멍들과 다르게 분류되었다. 전쟁

11) 4·3 희생자의 기준 또한 이러한 사고 위에 만들어졌으며, 그 기준에 들지 못하고 배제되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을 국가에게 인정받아야 했던 4·3의 아이러니함이기도 하다.

12) 하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성고문, 강제결혼 등의 이야기를 직접 털어놓기는 어렵다. 현재 진행된 이와 관련된 여성 연구들은 남성에 의한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 권귀숙(2014)은 4·3 여성 연구의 한계로 이와 관련된 실증적 조사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남편의 유무'라는 기준을 세움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있는 여성을 '남성가구'라는 이름으로 묶어내 그들을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3) 핵가족의 전제

여성에게 남편의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고와 남성 권력이 부부관계에서 공유될 것이라는 사고는 같은 전제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가족 개념과 맞닿아 있다.

흔히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생물학적인 요소(성 · 임신 · 출산 · 질병)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사회 제도이며 통시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는 구조 기능주의 사회학자들이 (핵)가족을 바라보았던 관점(이재경, 2003: 20)으로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왔다. 근대화 · 도시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은 대가족 제도에서 '자연스럽게'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론이었다.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지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제주의 가족 구조는 육지와 달리 핵가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기본적으로 한 집에 사는 구성원들이 부부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비교적 적은 인원의 소가족 형태이며, 장남까지 결혼 후 분가 하는 풍습이 '핵가족'으로 명명된 것이다(최재석, 1976; 이창기, 1999; 김혜숙, 1999; 김창민, 2020). 하지만 제주의 가족이 '핵가족'으로 이야기되는 근거인 '외형적' 모습에는 서구 근대 가족체계에서 기인한 핵가족이라는 명칭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관이 비가시화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핵가족' 개념에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배경으로 사회와 친족관계로부터의 심리적 · 경제적 독립"의 성격(차선자, 2010)과 '이성애 가부장제'와 '일부일처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제주의 가족을 '핵가족'으로 명명하게 되면 동시에 다른 친족관계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지워버린다.[13] 부계질서가 지배적인 사회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

13) 실제 제주의 생활세계에서는 핵가족 구조만으로는 제주의 가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핵가족+@인 핵가족+첩/ 핵가족+궨당 등의 구조로 제주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설명하고 있다(김창민, 202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족'에서 중요 구성원인 '남편'의 죽음의 의미는 관념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남편의 존재'가 여성에게 가장 중요했고, 남편을 상실한 홀어멈은 다른 친족 네트워크에서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핵가족'은 서구 문명화 · 근대화에 대한 추구 속에서 지향되어 만들어진 가족 개념이었다. 개화기부터 서구 국가들과 같은 문명화를 위해서 서구 가족과 같은 '핵가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으며(전미경, 2001),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를 거치며 제도적으로도 정착되게 된다. 식민지 시기 일본의 경우는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서구의 영향을 받아 재편했던 근대화의 기초인 가족제도를 조선에 이식시켰다(김혜경, 2006). 해방 이후 미군정시기에는 민주주의 ·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가족 제도 형성이 필요로 했으며 가족은 자본주의적 '효율성'에 맞는 형태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부각된 가족 모델이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축첩제 폐지 운동이 이루어지며 일부일처제가 법으로 확립되었고, 간통죄가 만들어지면서 '핵가족'을 전제로 하는 일부일처제는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는 '진보된', '문명국' 등을 위해서 서구 핵가족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언설이 반복되었다(김은경, 2007).

서구 문명화를 위해 근대 핵가족 제도가 정립되어야 했고, 가족이 핵가족화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존재하던 다양한 가족들은 일괄 재편되어야 했다. 4 · 3, 한국전쟁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의 이산, 죽음, 동원 등이 발생했다. 사회적 유동성과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가족은 여러 형태로 재편되고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구 '핵가족' 모델에 대한 지향 속에서 생활세계에 실존했던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일축되어 버렸다.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운동의 흐름에서도 나타난다. 1958년의 가족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 계속되었던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결국 호주제가 폐지된다. 호주제는 한국 가족법상의 가족 제도의 골격을 이루며 가족의 범위를 확정짓고, 호적제도의 실체법적 토대가 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가족관계의 기본 틀이 되어왔다(양현아, 2006).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 제도 바깥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루어낸 여성운동의 쾌거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가족-정상가족 모델을 오히려 강화한 측면이 존재한다. 혈연 중심의 협소한 양성평등이나 이성애 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은 호주제 폐지 운동의 한계로 일컬어진다. 또한 핵가족-정상가족 모델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의식이 뚜렷하지 않다(백영경, 2020).

'홀어멍'의 강조는 강화되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핵가족-정상가족 모델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 직후 만들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들, 부부 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관계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던 일부일처제 법률의 확립과 가치관의 확산 속에서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4·3 여성의 삶에서 남편의 상실이 갖는 괴로움은 부각되지만,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괴로움은 원래 그 시대 여성들이 다 겪었던 일로 치부되고, 가족 구성원의 상실과 부재를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지원함으로써 채워왔던 모습은 비가시화되었다.[14]

근대 서구 가족·정상가족 패러다임과 4·3 남성피해, 성비불균형 현상이 접합되어 '홀어멍의 부각'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에게 남편의 유무는 가변적 사실이며,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의 일생을 생각했을 때, 시기 마다 다른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 여성들의 삶은 가족관계로 묶이는 남편의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그녀의 고정된, 절대적 정체성이라 하기는 어렵다. '홀어멍'도, '아방 이신 어멍'도 한 여성을 어느 순간 칭하는 명칭에 불과하며, 가변성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면서 핵가족 개념이 비가시화한 다양한 관계를 포함한 상태로 여성들의 4·3 이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피해성의 강조 : 무고한 피해자의 상징

14) 이러한 가족 모델은 실질적 문제를 야기한다. 현혜경·김석윤·허유순(2019)은 직계 부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방계혈족들의 기념의례 계승과 인정투쟁에 대한 연구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직계 혈족이 아닌 유족들은 가족 범주에 들지 않아 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최근에 들어서야 제사계승 및 묘 관리 등을 관장하는 방계혈족의 일부만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는 가족의 범주가 발휘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학술연구의 진행에는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담론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 정치적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홀어멍의 부각'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4 · 3 이후 긴 기간 이어진 극우반공체제에서 4 · 3은 공산 폭동으로, 오랜 시간 4 · 3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대항담론으로 항쟁론이 제기되었고, 1990년대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4 · 3의 수난사적 측면, 민간인 학살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인권과 평화, 휴머니즘 차원의 관점은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으며 더 발전된 형태로 현재 4 · 3의 공식 기억이자 서술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특별법 제정-국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1998-1999년 진행된 증언 채록들은 4 · 3의 '민간인 학살' 측면에 초점을 맞춘 피해 사례 발굴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고함'을 강조했던 당시의 정치 지형과 담론에서 '여성'은 어디에 위치해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 3의 공식 기억이 '국가권력으로 인한 인권유린이었지만, 국가가 폭력을 자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죽게 된 과잉이자 과오'라는 관점으로 정리되면서 여러 경계선들이 그어지기 시작했다. 4 · 3이 공적 영역에 편입하며 책임문제가 흐릿해지는 가운데 '피해자'는 '희생자'로 명명되었고[15], 국가의 기준에 맞는 '합의된 희생자'와 유족이 공식화되었다. 배제와 선별을 통해 '합의된 희생자'와 유족을 가르는 경계선이 세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 국가가 판단한 이들은 희생자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고성만, 2011).

분명하고 합의된 경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배제되는 이들의 반대편인 대표적이고 적합한 희생자 역시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피해 상황을 강조해야하는 상황에서 '폭도가 아닌 무고한 민간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자(死者)가 아닌 '순수한' 대표 생존 피해자 역시 존재해야하는 것이다.

---

15) "제주 4 · 3특별법은 (…)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만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없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뿐만 아니라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군인과 경찰도 해방 전후 혼란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법제처, 200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성은 그에 가장 적합한 생존 피해자였다. 4·3다큐멘터리에서의 여성 재현을 연구한 권귀숙(2004)에 의하면 실제 1989년-2004년까지 제작된 다수의 영상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 부각을 위한 결백 이미지 생산에 가장 적합한 존재이자 상처의 기호로 여성을 채택했다고 한다. 여성은 폭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존재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포함된 집단마저도 결백하게 만드는 존재로 말해진다. 결백한 존재로 전제된 여성의 피해는 더 억울한 피해로 부각될 수 있고, 그 상처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에 그들의 고통을 통해 4·3의 상처를 더욱 상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모성-어머니' 라는 기호까지 덧입혀진다. 고생하며 자식들을 길러낸 '어머니' 표상은 4·3의 수난사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며 폭동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항쟁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강한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결백한, 중립의 기호이기도 했다. 그렇게 여성은 무고와 결백, 고통의 상징이자 대표 생존 피해자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4·3 관련 여러 여성 주체 중에서도 '홀어멍'이라는 주체를 두드러지게 했다. '빨갱이로 몰려 무고하게 죽임당한 젊은 남성과 그들의 부재를 평생 가슴에 안고 온갖 고생 속에서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홀어멍'이 4·3 피해를 대표하는 생존자로 자리 잡았다. 2001년-2004년, 2009년-2020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장한 어머니상'(2012년 '장한 어버이상', 2015년 '4·3 어버이상'으로 개칭)의 수상자 중 다수가 '홀어멍'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16]

비극의 극대화를 위해 활용된 '무남촌', '홀어멍촌' 등의 언설은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막상 호미마을의 마을주민들은 '홀어멍촌', '무남촌' 등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북촌을 무남촌으로 불렀냐는 질문에 "거기는 해변마을이라 그런 못된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 안했다."고 답

16) 이 상의 심사기준은 △4·3사건으로 인해 남편을 여의거나 행방불명돼 생활이 어려운 데도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지역주민으로부터 귀감이 되는 자 △4·3사건으로 인해 부모를 여의고 집안의 가장 역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제들과 같이 화목과 화합을 이끌어 모범가정을 꾸려온 자 △4·3사건으로 인한 후유장애자인이거나, 후유장애인의 부인으로서 남편을 극진히 간병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모범가정을 꾸려 나가는 자이지만, 초창기 수상자의 절대 다수가 첫 번째 기준에 해당했다. 첫 해 수상자 30명 중 27명이, 2009년-2012년의 수상자 110명 중 86명이 홀어멍이었다는 사실은 '홀어멍'이 4·3을 겪은 여성의 대표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이후 어머니상에서 어버이상으로의 개칭과 함께 수상기준도 변화하며 수상자의 범주가 늘어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했다. 외부에 의해 불리면서 만들어지는 호칭도 존재하기에 인근 마을인 함덕 주민들에게도 물었지만 “들어본 적 없다. 그런 말 사용하지 않았다.”와 같은 대답을 들었다. ‘무남촌’이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된다고 여겨지는 북촌의 경우에도 ‘너븐숭이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무남촌’이라는 표현을 공식 설명으로 채택되었기에, 일부 생존자들은 ‘무남촌’이라는 표현 자체를 알기는 하나 이 역시 생활세계의 언어는 아니었다. 이러한 대답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실제로는 군인, 경찰, 산사람, 폭도 등으로 표현되었지만 ‘토벌대’, ‘무장대’가 공식 언어로 자리 잡아 현재는 증언자들조차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무남촌’, ‘홀어멍촌’과 같은 표현 역시 실제 사용된 언설이라기보다는 이후 담론화되는 과정 속에서 구성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지형과 학계 흐름이 맞물려 홀어멍은 ‘4·3의 순결한 피해자’이자 ‘여성유대와 강인한 생활력을 통해 4·3을 극복해낸 주체적 존재’로 양가적 표상성을 획득하며, 4·3 여성을 대표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

‘홀어멍의 발견’ 이후, 제주의 한 중산간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용하고 있던 ‘홀어멍’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종류의 의미가 만들어져 정리되었다. 이제 홀어멍은 여성 경험을 틀 지우는 형태에 있어, 일종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성 피해를 서술함에 있어 남편 상실이 우선시되며 가장 큰 피해가 되었고, 4·3 여성 경험의 주체성은 ‘마을 재건’과 ‘여성 연대’의 키워드로 정리되었다.

선행연구는 주류 시야의 밖에 위치했던 ‘홀어멍’ 이라는 하위주체를 발굴해 그들의 삶을 마을이라는 공간을 통해 복합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4·3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생활세계에서 사용되는 홀어멍은 현재 정리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홀어멍’의 의미보다 훨씬 얼룩덜룩하고 복잡한 결을 지니고 있다. 이 복잡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좀 더 확장된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홀어멍’이라는 범주에 갇히지 않은, 호미마을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4·3 경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홀어멍 마을에 사는 여성들

3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4·3 이후의 마을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4·3이 갖고 있는 민간인 학살의 성격은 시선을 피해로, 학살과 폭력의 끔찍한 순간·장면으로 집중시킨다. 혹은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온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4·3의 영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 사건 중심의 이미지와 장면으로만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이후의 흔적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일상이 폭력 이후에 어떻게 재조직되었는지, 일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봐야한다. 4·3 이후 일상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개인'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다. 개인의 감정적 괴로움, 연좌제로 인한 억압, 후유 장애로 인한 괴로움 등, 하지만 개인 차원의 관점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사람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살지 않기에 일상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관계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4·3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함께 조망해야한다.

선행연구는 이 부분에 입각해 진행된 연구였다. 하지만 비-홀어멍이라는 존재의 공백이 있는 상태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홀어멍 마을'이라 불릴 정도의 성비불균형 공간에서 '아방 이신 어멍'과 '홀어멍'을 포함하는 호미마을의 여성들이 어떻게 일상을 영위하며 살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성비불균형 공간에서의 관계

가부장제 사회의 심각한 성비불균형 현상 속에 소수의 생존남성은 귀하게 여겨졌다. 부계와 비부계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제주의 가족(이창기, 1999; 김혜숙, 1999)이지만, 성비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서 남성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화되었다.

이제 남자들은, 그때 당시 4·3사건 때문에 거의 남자들이 다치거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떻게 되거나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나 외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막 무슨 바가지에 먹어도, 밥을 사발에 꼭 떠서 상을 딱 차려놔. 아침에는 일어나면은 이제 그 세숫물도 꼭 떠내야…. (D)

호미마을은 양반촌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타 마을보다 부계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존재했다. 외부에 의한 폭력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억울한 죽음은 소수가 된 생존 남성을 더 귀하게 여기게끔 했다.

나 어릴 때 우리 아버지네가 사람을 못 키웠어. 남동생이 셋,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못 키원. 나도 잘도 억울하여. 어릴 때 죽었어. 그렇게 여섯 살 난 아이, 남동생 죽을 때 나가 정신이 나갔주. 우리가 이제 여자들은 여섯 형제라. 남동생 셋은 다 먼저 가부런. 낳으면 가고, 낳으면 가고. 결국 족은 어멍 들여서 남동생 낳았다마는…. 나 족은 어멍한테 고통 받은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네가 밭도 좋고 했는데 사람(아들)이 아니 커부난 재산이 왕창 없어져부런. 사람이 없어부난. 아이고, 우리 부모도 속이 막 타들어갔주게. 아들만 컸으면 재산도 우리 저쪽으로 밭 세 개…, 텃밭이 영…, 우리 어머니네 밭들이 다 없어졌어. 우리 하르바님 한문선생하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그렇게 되언. 오래비만 컸으면 왕창 부자로 그냥 있고 집안 왕창 번성했을 건데. 우리가 전부 여자, 여자만 있어부난 집이 폭삭 망해버렸어.(Y)

애기를 낳은 거라. 남자 어른은 바깥에 있었는데 “뭘 낳았느냐?” 해서 딸이라 하니까 아이코. “정식(J 남편 이름)이는 안 됐구나. 안 됐구나.” 하더라.
하이고 그날, 뒷날 또 뒷날은 호미마을을 왔거든. 오니까 어떤 할머니가 오난. “애기 난 울어지는 게 애기 어디 울었나?” 저기 방안에 있댄 허난. 가서 보고 나오면서…, 그놈의 할망도 말 짱짱하주. 애기는 눈이 영 큰 게 고추 봄직 헌데 (딸이라) 금방 죽겠대. 나, 설움 아니라, 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할망 했던 말.(J)

Y는 남자 형제가 없어 많은 재산이 사라져버렸고, 아들이 있었으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 생각했다. 간신히 아버지가 족은 각시를 얻어 뒤늦게 아들을 낳음으로써 제사 승계는 이루어졌으나, Y는 현재도 아들이 없어 자신 친정 집안이 몰락했다고 본다. 훈장 가문으로 호미마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자신의 가문이 몰락한 것에 대해 Y는 회한과 서러움을 갖고 있다. Y의 생각은 호미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사고이기도 했다.

J는 전략촌 생활을 하던 무렵, 예비검속으로 끌려갔던 남편에게 옷이라도 가져다줄까 싶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동척회사로 향했다. 가다가 학살 장면을 발견하고 충격 받아 쓰러지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진통이 왔고, 진통을 겪은 끝에 길에서 양수가 쏟아지고, 아기 머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서 걷고 걸어 간신히 아는 사람 집에 찾아가 힘겹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그렇게 힘겹게 낳은 아이는 딸이었다. 몇 겹의 괴로운 상황에서 임신, 출산을 겪었건만, J의 출산은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기억은 J에게 현재까지도 굉장히 서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득남'이 중요한 이유는 '아들'이 제사를 비롯한 의례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의례를 수행하는 아들에 의해 집안의 정체성이 이어지고, 재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위태한 가문의 존립을 위해 아들 생산이 더욱 강요된 측면이 있었다. 아들은 부계의 가계 계승을 잇는 존재이자, 초월적 세계의 조상과 현실 세계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영속적 체계를 보장하는 제사인 봉제사를 주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였다(정진희, 2017).

4·3의 수많은 죽음들은 비정상적인 죽음이었다.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자는 조상신이 아닌 원혼이 된다(최길성, 2010). 하지만 비정상적인 죽음이어도 일정한 의례를 거치면 원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는 영혼의 불행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주체에 의해 사후 의례가 행해짐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이다. 비정상적 죽음에서 정상적 죽음으로 지위변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강정원 · 이도정, 2017) 철저하게 4·3이 금기시 되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빨갱이 취급 받으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연좌제에 연루되던 시절,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죽음을 정상 죽음으로 치환해야했다. 때문에 살아남은 이들은 죽은 가족들에 대한 제사와 제사를 지내줄 아들에게 더 집착하게 된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 생산은 여성의 중요한 의무로 여성의 지위는 아들에 의한 부계의 가계 계승을 통해 가족 안에 자리매김 된다. 이 의무는 4·3의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맞물려 결합되면서 4·3 이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줄 아들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자식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식이 있어야 한다게. 자식 없으면…. 사람은 씨가 있어야지. 씨 없이 살면 안 되고. 난 요즘도 이제 그런 말 한다. 씨 없이 살다가 죽어 불면…, 사람은 씨가 있어야 한다.(J)

자식에 대한 강박을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다. 사람에게는 씨가,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4·3을 경험했던 당시 세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으레 일삼는 말이자 그 시대의 전형적 언설이고 가치관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 또한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도미야마 이치로(2015)는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수많은 죽음과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쫓겨난 자들의 삶이 동료들을 필요로 하는 죽음 곁에 있는 삶이자 동료들의 죽음 ‘이후의 삶’ 이라는 사실이다. 사라진 자들의 ‘삶/죽음’은 남은 자들의 삶과 연결되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끝나지 않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후의 사유’는 죽은 동료들에 대한 책임이자 남은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4·3을 겪으며 살아남은 이들에게 삶. 가족들과, 이웃들의 죽음 이후의 삶. 그들의 삶과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의 연결되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끝나지 않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죽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자 남은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발현되었을까? 아마도 더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고, 교육시키고, 마을을 키우는 형태로,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가치를 더욱 성실하게 지키고 따르는 형태로 발현된 것이 아닐까? 당시 그들에게는 그게 그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마음을 의식하고 언어화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는 없지만, 아랫세대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씨앗을 남겨야 한다.”는 말의 무게감은 단순히 표현된 의미보다 훨씬 더 무겁게 존재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이 느끼는 압박은 몹시 컸으며 득남여부는 여성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17] ‘아들 생산’은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큰 부담이자 의무였다.[18] Y의 친정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득남’을 위한 새로운 혼인관계를 추가로 형성하고자 했다. 이 때 사용되는 표현이 ‘족은 각시’이며, ‘족은 각시’가 되는 여성은 주로 ‘홀어멍’이었다.

> 내가 아들은 스물 아홉에 낳았고. (마음이) 몽땅 그 전에 썩을 거 썩었지. 에... 나가 아들을 못 낳았어. 세 개 죽어부난. 그 다음은 (족은) 각시 얻어 아들 낳으니 그게 큰 아들이고, 내가 낳은 건 두 번째 아들이고. (중략)
> 나 아들 없을 때 우리 막내 시어머니, 우리 집에 제사 먹으러 왔거든? 와서 허는 말이. “좋은 사람(족은 각시) 있습니다. 형님.” 우리 시어머니신디. 그러니 “동생이 알아서 잘 해봐.” 나 들어도 원, 방 넘어 다니멍 내가 들어도 그 할망들 그렇게 말해. 나도 원…, 얻을 테면 얻으라 해. 나 말 아니 혀.
> 그 해 10월, 그 사람을 데려오면서 잔치해부난. 호미마을 사람이 다 왔어. 저 놈들 미친것들이래. 아직 젊은데 왜 각시를 얻나. 그렇게 허나, 그렇게 수군수군 했어. 그래도 잔치하니까 아이고. 사람들 돼지고기 잘 먹고, 술 먹고, 홀어멍들 춤도 추고… 막 잔치하는디, 그냥…, 난 가만히 누웠어. (J)

J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문중에서는 인근 마을의 홀어멍을 족은 각시로 들였다.

---

17) 호미마을의 아들을 낳지 못한 한 ‘아방 이신 어멍’은 살아온 날을 이야기해달라는 인터뷰 요청에 “난 아들이 없어서 해주 말이 없어.” 말하고는 이 인터뷰 요청으로 인해 며칠을 괴로워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줄 자격이 없다는 표현에서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들 생산이라는 의무를 해내지 못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을지, 주위에서 그녀를 어떻게 대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
김옥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를 못 갖는 자신을 “새끼를 낳지 못하는 돼지”라는 뜻의 ‘지지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득남 하지 못한 '아방 이신 어멍'은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김옥자, 『곤밥 한 숟가락』, 주식회사 꿈틀, 2018, 81-83쪽.)

18) 선행연구에서는 양반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호미마을에서 ‘홀어멍’들의 재가는 꺼려졌으나 ‘아들 생산’을 위해 ‘재가’를 선택하곤 했다고 설명한다. 이창기(1999)는 제주도민이 사후에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적귀신’을 가장 불행한 귀신으로 의식해, 이후 제사 봉양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아들이 없는 사별자들이 재혼을 택한다고 설명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J는 마을에서 수군대는 걸 들으면서도, 눈앞에서 족은 각시 들이는 걸 결정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득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J에게는 발언권이 없었다. 족은 각시가 아들을 낳은 그 다음 해 J 역시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던 기간 동안 자신이 받은 설움은 다 말할 수가 없다며, 인생을 회고할 때 가장 힘든 일로 손꼽는다. 괴로움을 겪는 것은 J의 작은 각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큰 각시와 족은 각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 그 사람(족은 각시)은 12월달 5일날 아들을 낳고, 뒷 해 오월 나니까 나도 아들을 낳았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 (아기 낳았으니) 사흘밥 먹으라고 (오라고 했는데), 아니 오더라. 막 울멍. (면담자 : 아, 막 울멍 아니 와?) 응. 싫었던 모양이야. 그래도 아방이 저기 사는데서 구루마에 같이 태워 오려고 했는데, 막 때리고 행패부린 모양이라. 그 여자가. 그러니 이젠 우리 아방이... “큰 어멍 난 애기도 애기우다! 태어난 걸 어떻게 하나?!” 라며 이제 막 배랑 가슴이랑 막 두드렸단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말해줘서 알았어. 날 보며 우리 시어머니가 “애기 어멍아 조용하라. 저 거 이런 저런 말 해서 막 아방한테 매 맞았다. 모르는 척 해라.” 나도 아무 소리도 안했지. 아이고. 그렇게 살아오는 게 참….(J)

J는 작은 각시가 아들을 먼저 낳아 입지가 위태로웠으나 뒷 해 아들을 낳음으로써 큰 각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감정들이 오고간다. 그러나 족은 각시는 오래 살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뜨게 되었고, J는 고생만 하다가 죽은 족은 각시에게 연민을 보이며 큰 각시로써 족은 각시의 4명의 아이들의 생활을 돌봐주고 결혼 잔치까지 무사히 치러준다. J는 족은 각시를 얻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서글퍼하면서도 동시에 고생만 하다 죽은 족은 각시의 삶에 대한 연민을 자주 표하곤 했다.

> 마을에서 큰 각시랑 족은 각시가 싸울 때도 있지.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아이고, 힘들게 싸워. 씨앗 싸움이라고. 안 싸운 사람들은 없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거라.(N)

4·3 때 홀어멍 된 우리 올레에 영훈이 어멍이 육지에서 돈 벌다가 서촌의 그 아방을 만나서 어떻게 아들 하나를 얻었어. 아방은 고향의 큰 어멍(큰 각시)신디 왔다갔다 하고 호미마을에는 영훈이 어멍만 애기 데려와 살았지. 근데 서촌의 큰 어멍이 영훈이 어멍 사는디 찾아완. 아방 없을 때 아들보고 차 몰랜 해서 왔어. 큰 어멍이. 큰 어멍이 그냥 밤중에 와서 막 행패부렸어. 한바탕 호미마을 사람을…. 큰 어멍이 와 큰 소리 해도, 잘못했수다 죽을 죄 지었수다 사정해야 할 거 아니? 사정 해여. 나 낳아놓은 애기 안 맡길 거니까, 당신네 아기들만 잘 키우랜 사정해연. 그래서 그 후로는 큰 어멍이 안 왔주. (D)

4·3 홀어멍들이랑 일도 하고…. 그러다보면 부부가 되어버려. 일 빌엉 하다보면…. 그렇게 산 사람이 무척 많아. 젊은 그 청춘들은 혼자 살기가 힘든 거 같아. 남자들 일해주다보면, 그냥 부부가 돼 버리면, 막 싸우는 데도 많지. 안 싸울 수가 있어? 싸우고…. 시집에서 쫓겨나. 그 어쨌든 남편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가? 혼자 살아도. 그럼 내쫓아버려. 남의 남자랑 잘못된…, 집안 망신 시켰다고 해서. 시집에서 내쫓아버려. 4·3 사건 홀어멍들 그랬어. (S)

N, D, S는 마을 안에서 벌어지곤 하던 큰 각시와 족은 각시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실제로 호미마을에는 지금도 서로 눈도 마주치려하지 않고, 여전히 서로를 원수라고 표현하는 큰 각시와 족은 각시가 있다. 하지만 큰 각시와 족은 각시의 관계가 '처첩간의 남성을 사이에 둔 갈등'으로 표현되는 전형적 이미지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득남에 대한 요구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찾아가 새로운 혼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아기만 낳아달라고 부탁해 아기만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족은 각시를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했다. 성비불균형 현상은 굳이 득남이 목적이 아니어도 '족은 각시' 관계를 만들어냈다. "어멍 두 개 하는 게 보통이라. 민택이네는 어멍이 4개, 얼른 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각하면 5개는 될 거라" 라는 말처럼 생존 남성들은 모두 2-5명의 족은 각시를 두었다. 4·3 이후의 기형적 상황이 만들어낸 가족형태인 셈이다.

족은 각시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변동이 일어나고, 거주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가족 사례마다 차이가 있는데, 큰 각시와 족은 각시가 한 집에 거주하기도 하고, 밖거리·안거리에 나누어 살기도, 아예 따로 집을 얻어 살기도 한다. 족은 각시가 들어오게 되면서 큰 각시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타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작은 각시와 큰 각시의 위치가 뒤집히기도 하는 등 법적혼인신고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 및 가족관계는 다양하게 뒤얽히게 되었다. 가정을 구성하고 거주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얽히지 않아도, 마을 내에서 남성을 사이에 두고 여성 간에 형성되는 긴장감이 있었다.

> 저, 이 사람이 남자라이. 남자면…. 저 이, 아휴. 말하긴 좀 그런데…. 홀어멍들이 먹기 힘들잖아. 응. 먹고 살기 저…, 우리 아버지도 그 때 보니까이, 우리 아버지가 이장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긴 다 힘들었어.
>
> 우리 집에도 아즈망들 물 허벅 지어, 물 지엉 들어오면이, 우리 오빠가 들어오는 족족 깨어 불더라. 우리는 어린 애기라 모르고. 우리 오빤 컸잖아. 머리가 굵어졌으니까이, 그건 머리에 생생하게 알아진다. (면담자 : 오지 말라고 깬 거예요?) 게난 오빠가 생각할 땐 저... 첩으로 본거지. 어머니 첩으로. 내가 그걸 크면서 이해한 거라. 무사 그 귀한 물[19], 그 거 귀한 물 지어 들어 왔는디 깨버렸는지…. 그 어른도 함덕 어른인디, 막 클 때까지 그 얼굴, 그 어른 얼굴을 안 잊어버려봤어.(E)

E의 아버지는 그 당시 살아남은 남성으로, 다른 증언자들에 의하면 일은 잘 못

19) 중산간 마을인 호미마을은 용천수가 없어 물이 몹시 귀했다. 숲에 고인 물을 항아리에 지어와 사용해야 했다. 물을 지어 오는 노동은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몹시 고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을 깨버릴 정도로 경계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지만 지식도 좋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E는 어릴 때 집에 항상 여러 연령인 7-8명의 여성이 모여 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믿을만한 남자 어른을 찾아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러 온다는 것이다. E의 오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즈망(홀어멍)과 아방, 어멍(아방 이신 어멍)의 미묘한 분위기와 감정을 읽어내고 아버지가 족은 각시를 들일까봐 겁을 낸 것이다.

> 아이고, 홀어멍들 그렇게 말해놨어. 우리집 하르방 작은 각시 얻으니까, (나한테) 자기만 차지해 살 필요 있나. 없는 사람 갈라줘야지. 그런 말 했다.(J)

J의 남편에 대해 홀어멍들은 J가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 나누어가져야 한다고 수군댔다. E와 J의 사례를 통해 마을 내 홀어멍과 아방 이신 어멍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와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어떤 여자가 이제 서방도 없이 산다고 하면 그걸 다 꼭 건드려. 남자들이. 이제는 못하지만. 건드려. (중략) 한창 살림 살 때 참…, 남편이라고 믿고 살다가, 어디 여자 꿰어오면 좋지 아니하지. 좋을 수가 없지. 좋을 수가 없주게. 애기가 큰어멍 있으면 말지, 뭣허잰…. (N)

> 그러니까이, 이 사람이 술을 먹을 줄 알아. 술을 먹을 줄 알면 이 홀어멍 집에 들어가고, 이 홀어멍 집에도 들어가고, 이 홀어멍 집에도 들어가면 각시가 세 개 되잖아. 그랬다. 그 때. (E)

또한 마을 남성들이 홀어멍을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럴 경우 홀어멍은 공식적으로 그 남성과 족은 각시의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여전히 홀어멍이면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누군가의 작은 각시로 불리기도 했다. 남성들의 이러한 행위는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이루어지곤 했으며, 가시화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렇다. 홀어멍이어도, 그 남자 데려다 서방네 집에서 같이 뚝 자고 이런 사람은 다 (잘) 아니 됐어. (중략) 우리 동생도 홀어멍이어도. 일절 남자랜 허는 거 (없었다). (남자가 집적거리니까) "이놈의 새끼 뭐영 말했어?" 우리 동생이. 막 "너 이 새끼 다시 한 번 말해보라!" 하도 욕해 가난 그 남자 그냥 가부런. 그렇게 하면 되는디. 우리 동생은 잘 됐어. 아들 형제 두 개에. (J)

J는 자신이 96년간 봐온 홀어멍들 중에 남자에게 의지했던 홀어멍들은 다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홀어멍이었지만 남성의 집적거림을 거절해 잘 된 동생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는 J 뿐만 아니라 당시 호미마을의 홀어멍들의 생각이기도 했다.[20] 제주는 역사적으로 축첩이 심한 지역(김혜숙, 1999)이었지만, 양반촌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호미마을에서 작은 각시의 이야기는 쉽게 나올 수 없었다.[21] 가부장제의 정절 이데올로기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다르게 작용하면서 여성들의 행동을 규제했다. 아방 이신 어멍과 홀어멍은 서로를 견제하는 프레임에 가두어져 그 속에서 모두 고통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는이, 다 족은 각시 해놨어. (면담자 : 아이고…. 족은 각시도 힘들고, 큰 각시도 힘들고.) 다 서로가 다. 힘들지. 에고게 말이여. (J)

마을 내 여성들의 관계는 단순히 홀어멍과 아방 이신 어멍으로만 구조화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처첩관계로 뒤얽히고, 여성들 사이에 긴장감, 경쟁구도 등이 형성되기도 하고, 위치가 전복되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아들' 중심의 부계 혈통 가부장제 하에서 자기 결정적 삶을 살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존재였다.

---

20) "'호미'마을 여성들은 남편을 잃고 나서도 재가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재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여성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답하였다. 왜 좋지 않냐고 다시 물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경허니까 좋은 것으로 아니봤다."고 했다. (이정주, 1999; 2000)

21) 실제로 연구자는 증언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파악이 가능했지만 모두 남들의 작은 각시에 대한 이야기는 할지언정, 본인의 작은 각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옛날에는 저... 부잣집에는이, 작은 마누라를 들이면은, 것이 남편이 막 잘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 부모들도 내 아들이 저... 아들을 못 낳았다. 경허면은 큰 어멍 알게 각시 데려오고 그랬잖아. 며느리 데려오고. 우리 외갓집에는이, 우리 그... 외삼촌이 스무살에 마을 이장하고, 광주 가서 사기그릇 공장을 했어. 부잣집이니까. 경하난예 여자들이 막 이쁜 여자들이 따르는 거라. 여자를 데려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숨켠 데려 살기도 했어. 큰어멍이 그걸 알아도, 못 말려. 못 말려서 우리 외숙도 각시 세 개는 죽을 때까지 있었주. (그러면 그 아방이 각시 세 명을 다 먹여 살리고...) 그럼! 그런데 여자들이 다 일했잖아게. 남자는 기둥으로만 놨지. 게난 나가 자식을 나도 나 호에도 못 놨다. 큰어멍 밑으로 다 놨주. 그렇게 허난게 지금도 팔남매, 10남매 하는데 있잖아. 어머니 혼 사람이 낳은 자식 아니야. 둘 셋씩 낳지.

예전에는 호미마을 만이 아니라 제주도 실정이 그랬다. 제주도 실정이 그랬어. 그러다가 차츰차츰해서 각시 두 개 영 하면 좀 부끄러워... 자식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어 가니까 차츰차츰차츰 그게 벗어난 거주. 그렇게 했어.(E)

E는 족은 각시는 원래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차츰차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이를 벗어나게 된 것이라 이야기한다.

족은 각시는 경계에 있다. 그 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지 않는다. 재가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고는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마을 남성과의 추문에 의해 족은 각시가 된 경우는 이들을 더 숨겨진 존재로 만들었다. 근대화 · 문명화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일부일처제의 법률화(김은경, 2007)와 축첩제 폐지 운동은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로 진행되면서 '정상 가족'의 범주를 만들어냈고 이미 생활세계에서 존재하지만 그에 속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스스로를 숨겨올 수 밖에 없었다. 일부일처제의 핵가족 이데올로기가 선진화된 가족 형태로 전파되면서 4 · 3 당시 만들어졌지만 '정상가족' 범주에 들지 못하는 이들은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자식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세대의 경우에는, 더욱 자신의 존재의 존재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살아올 수 밖에 없었다.

2. 남성 권력의 양면성

4·3 이후의 마을에서 당시의 상황을 잘 활용해 정치·경제적 권력을 잡는데 성공한 남성이 있다. 바로 J의 남편이다. 그는 마을에서 4·3 이후 부상한 신흥 권력자[22]로, J는 권력을 가진 남성을 남편으로 둔 '아방 이신 어멍'이었다. J의 시어머니가 "너희는 1년에 밭 하나씩 샀어." 말했을 정도로, 부부는 재산축적에 성공했다. 하지만 남편의 권력이 정말로 J에게 함께 공유되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면담자 : 삼춘은 그래도 남자 삼춘 살아계셔서 일하기 좀 쉬우셨겠어요.) 그렇진 않어! 일꾼 빌어다 하는 거주, 영감 아니헌다! 그냥 그 하간 거, 하간 거. 아니, 일 허기는 허는데도 그 경 무신 그 맨날 어떵허영. 이런 방에 종이 한 장을 아니 붙여났다. 나냥으로. 이래 부쩍. 저래 부쩍. 일 년에 방 한번을 똑발라야 하는데.(J)

J는 언성을 높였다. 일은 일꾼을 빌어다 하는 것이지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었다. 20명을 웃도는 일꾼을 관리하는 등 많은 일들이 J의 몫이었다. 말, 소 키우기, 정미소, 밭 개간해서 빌려주기, 양봉, 절간 고구마 공장, 무말랭이 공장 등. 양봉은 남편이 한라산에 몇 개월간 나가 살며 하고, 그 외의 일들은 주로 J가 맡아 해왔다.[23] "그냥 그 온갖 거, 온갖 거" 라는 표현은 남편이 했던 여러 정치활동과 대

22) J의 남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존남성의 이점을 모두 활용해 특권을 얻은 이였다. 그는 4·3 이후 마을의 신흥 세력이자 마을의 중심으로 급부상한다. 토벌대에 의해 장손집안 사람들이 몰살당하고, 그는 양자로 입적되어 집안의 제월전을 물려받았다. 또한 문서를 잘 활용, 외지 사람들을 일꾼으로 빌어 밭을 개간해 돈을 벌고, 마을의 정미소, 절간 고구마, 무 세척장 등의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 경제적 권력 뿐만 아니라 부락복구 위원장, 구장, 1대(1952-1956), 2대(1956-1960) 면의원을 지내기며 정치적 권력까지 얻었다. 다른 증언자들은 모두 J의 남편이 양자로 가면서 재산을 늘릴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 남편은 4·3사건에. 게난 양자됐지. 어째 잘 들었네. 그디는 애기가 없는 집이야. 4·3사건에 모두 죽어부런. 처음으로 거기 불 붙어 불고 해난…. 양자 가니 그 재산 다… 그쪽으로 가 그 재산으로 살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외 활동으로 인해 부재했던 상황을 일컬으며, J는 “농사하면 아방은 그냥 나가불고, 나가불고.” 했다고 말한다.

> 우린 밭에 농사, 공장, 또 소, 말, 벌, 이거 다섯 가지 아니냐. 전부 내가 밥해 먹이고. 벌밭에 가고…, 소 살피고…, 공장하는 일꾼들 공장일 하는 거 보고, 밭에 다니는 놈 보고, 밥해주고, 영해불민…
> 살아난 생각하면, 어떵 핸 살아졈시고. 아이고 징그러워. 하도 일도 해노난. 사람이 하루라도 앉아 좀 놀면 좋을 건데 궂기만 하고. 이래갔다 저래갔다 일꾼 빌어 밭에 보냈당, 점심 허였당, 그냥 안 궂은 적이 없다. 물을 하루 7번 강 질어오지 않으면, 허벅으로. 질어오지 않으면 뒷날 아침 조반할 물 없어.(J)

J는 강도 높은 노동 속에서 살아왔다. 남편이 벌려놓은 많은 일들을 뒤에서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건 J의 몫이었다. 농사와 공장 일 뿐만 아니라 아이 낳고 키우는 일, 집안 일, 심지어 12번이나 치른 혼인 잔치와 10여회 되는 제사·명절을 준비까지 해야 했다. D는 J를 가리키며 “우리 성님은 하르방 살아 있을 땐 12시 전에 누워보질 못했어. 농장이 많아부난. 그 일 다 하느라고. 막 고생했주게.”라고 말했다.

J는 남편과 함께 재산을 모았지만, 그녀의 삶이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평안하고 안온한 삶이라 보기는 어렵다. 홀어멍 가구 보다 더 많은 재산 축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녀가 가졌던 권력이었을까? 4·3 이후 소수의 남성에게 집중되면서 강화된 남성권력은 남성의 것이었지, ‘아방 이신 어멍’의 권력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남성권력 생성을 위해 존재했던 이면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부과되었다.

---

23) 제주의 땅은 화산회토로 물을 가둘 수 없어 김매기 중심인 밭농사를 지어야 했다. 밭농사의 경우 처음 마소를 데리고 밭을 밟는 밭 갈기 작업에만 남성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제주의 여성들은 밭농사와 가사노동, 양육, 바다에서는 미역을 채취하는 물질까지 홀로 해왔다. 4·3 이전부터 가정 경제를 주로 책임졌던 것은 여성이었고, 밭 갈기를 비롯해 지붕을 잇거나 돌담을 보수하는 등의 집을 유지하기 위한 일과 목축과 수렵, 바구니 짜기 등의 일이 남성의 영역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할아버지는 나 돈 주도 안한다. 난 주도 안한다. 안줘. 안줘. 모이는 돈이니까 나도 그냥 가만 내버려뒀지.(J)

정미소 하니까. 그것이 통통해영 나오면은 돈이 되고, 그걸로 놉 빌어 밭에 강 일해영 돈이 되고, 그걸로 또 이제 아방이 용서가 되어.(J)

고강도의 노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J가 직접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남편의 권력이 부인에게 공유된다는 생각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재산축적에 성공했고, 다른 여성들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J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방이 용서가 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우리집 아방은 사태 전에도 저 육지 강 돈 받아오랜 하면 받아오고 경했는디. 무슨 일을 맡으면 못하질 아니했어. 아무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그 할아방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그 하르방은 '황당한 하르방' 아니냐 경헌다. 4·3 사건 후에는 우리는 호미마을서 1등. 아방이 모든 거 철저하니까이.(J)

우리 하르방 또래에 다섯 사람 살았다. 그 사람들 다 일 안했어. 놈일하는 사람들 아니여. 아니한다. 원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라.
현택이는 땅에 손 한 번 대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도 재산이 원체 좋아부난 재산 전부 팔아 살았다. 석호는 일 좀 해서 돈 벌었는데 오래 살도 안했어. 그만 어떵 하단 누구랑 틀어져버려서 그 사람이 술 먹고 두드려부난 맞아서 죽었어…. 병원에서는 해부해보니 병이 있었다 하긴 하는데…. 을용이만 재산이 없었지. 좀 게을러서 뭐가 되느냐게. 어디 밭 하나 있는거 팔아 버리고. 잘 아니 됐어. 성민이란 사람은 다방에 미쳐서 살고.
그러니 홀어멍들 나한테는 경쟁해도 다른 각시들한테는 경쟁 아니하더라게. 하르방들이 다 그래놓으니…. (J)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일 아니하면 아니되어. 일을 해여야만. 경허고 사태 후제에도 자기 냥으로 일을 땅땅 한 사람은 전부 일어서고. E 아버지는, 거기는 나이가 좀 많았어. 거기도 일을 잘 못했거든. 그 아들들이 경들 못하고…. 그래서 그 집은 이후 잘 안 됐어. Y 남편도 좀…. 각시가 고생햄주게.(J)

우리는 타작기랑 정미소랑 해서 막 벌어가난, 박문수네. 그디 아방도 했는데. 그디도 해연 이익 못 봤어. 이익 얼마 못 봤어. 그 남자 어른이 막 행패만 부리다가 죽어부런. (J)

J의 증언은 남편의 사례가 마을 안에서도 흔한 사례가 아니었고, 특수한 사례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황당한 하르방'이라는 표현은 그의 4·3 이후 행적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J는 당시 자신의 남편과 살아남은 5-6명의 남성들을 손꼽으며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J의 남편 외의 남성들이 모두 J 남편과 같은 행적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다른 남성들은 모두 집안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으며,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방을 다니거나, 게으르거나 해서 홀어멍들이 J는 질투해도 다른 남성들의 부인은 질투하지 않았다고 한다. 살아남은 20-30대 남성들이 모두 생존남성으로서의 권력을 쥐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J의 남편이 더 특수했던 사례라 보아야 할 것이다. J의 남편은 식민지 시기 중국 길림성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으로 건너가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24] 이러한 이주와 임노동의 경험은 J 남편의 시야를 넓히는데 작용했다. 20대 초반 중국에서의 임노동 경험, 4·3 양자 입양으로 인한 재산 상속, 성비 불균형 현상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J의 남편은 빠르게 시대에 적응하고 균열과 변화를 활용해왔다.

24) J 부부는 혼인 1년 후, 중국 길림성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으로 건너간다. 일본으로 이주했던 호미마을 사람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가 일하는 공장이 중국으로 확장되면서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잠시 들린 것이었다. J의 남편은 그의 중국행에 함께 하기로 결정한다. 중국으로 떠났던 그는 중국 공장살이에서 가능성을 보고, 6개월 후 J을 데리러 제주로 돌아왔다. 함께 중국으로 떠난 부부는 1년 간 시멘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에게 피부병이 생겨 귀향한다. J은 이를 회상하며 그래도 중국에서 번 돈이 조금 있었고, 5년만 더 있었으면 땡잡았을 거라며 귀향에 아쉬움을 표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30년대 제주도의 농촌은 농업생산에 있어 시장의존도 혹은 상품화가 심화되고 소비에 있어서도 소비규모가 커지면서 현금수요가 많아지는 등 자급체제의 붕괴와 함께 바로 식민지시장경제로의 '급속한 편입'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진관훈, 1999). 호미마을 사람들의 인식 범위와 실제 일자리 또한 임노동시장으로 연결·확장되고 있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J의 남편이 그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호미마을에 있던 생존 남성들 전반의 이야기와 아방 이신 어멍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역시 소수의 생존 남성에게 해당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 남성 노동력으로 일컬어졌던 '밭 갈기 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수눌음이 지금 같은 게 아니고, 하루 밭 갈면 이틀을 일해주지. 소 가져오면 소 값 이틀, 사람 값 이틀 해여. (면담자 : 이렇게 저같이 젊은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도 하루 일해 줬으면 여자도 하루 일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그런 사람도 있었어. 자기가 못하는 일을 와서 해주니까 좀…, 가볍게…. 하루 종일 밭 안 갈았으면… 하루만 받아. 인심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었어. 그런데 그거 업으로 밭 갈아주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그냥 서로 농사짓고 우리 수눌어가멍 합시다, 우리 밭 갈아줍서. 나 일해주쿠다. 하루 해주고 미안하면 이틀도 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S)

S 역시, 남편이 있었지만, 밭 갈기는 수눌음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밭 갈기 노동력의 교환 기준에 대해서 증언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했다. 이정주(1999)는 5일, Y는 3일, S은 소값 2일, 사람 값 2일, 혹은 사람에 따라 하루 이틀로 도 가능했다고 한다. 이는 노동력 교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뜻한다. 그 기준은 각 사람들의 상황, 친족관계 등에 따라 변용되는 기준이었다.

기준선이 맞추어지는 것은 오히려 S가 언급한 "밭 가는 것을 아예 업으로 삼은 사람"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밭가는 일을 수눌음이 아니라 성비불균형 현상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용해 '업'으로 삼는 남자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농사체제가 수눌음이 아닌 임금노동의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J는 밭 가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이는 호미마을 출신이지만 옆 마을에 살고 있던 남편의 아랫세대 남성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밭을 많이 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J, Y, N, S, E는 모두 "당시 홀어멍들 중에는 밭 갈 줄 아는 남자를 모셔서 밭 가는 법을 익혀서 직접 밭을 가는 이들도 많았다."고 말한다.

> 게난 농사도이, 호미 농사를 많이 하고. 소로 갈아서 헌 게 아니고. 호미로 잘게 부서서 많이 농사했지. 우린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늙어도. 다른 사람 빌어하지 아니 허고 호미, 괭이로, 흙을 잘게 부숴서 그 많은 밭을 다 이기고. 에휴…. 경허멍 살암주. (N)

N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고령 생존 남성이었다. 본인이 밭을 가는 노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남성이었기에 다른 집에서 밭을 가는 남성 인력을 빌려오지 않았다. 결국 밭을 가는 일까지 N과 어머니가 맡게 되어 호미로 밭을 전부 갈아야했다. 남성 인력을 구하지 못한 홀어멍들이 직접 밭 갈기를 배워 행하거나, 호미로 밭을 가는 등 또 다른 돌파를 택한 셈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인식은 여전하지만, 성비불균형 현상 내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했던 행동들이 균열을 만드는 쐐기가 되어 조금씩 기존의 노동의 성별 위계화가 깨어지고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모든 생존 남성이 직접 밭 갈기 노동을 했던 것도 아니었다. J에 의하면 4·3 이전 결혼해 생존한 청장년층 5-6명의 생존남성 중 직접 밭을 갈았던 남성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4·3 후유증을 크게 앓았던 한 명을 제외하고는 4·3 이전부터 이미 재산이 많았던 집들이라 직접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밭 가는 역할은 4·3 당시 청소년이었던 그 아랫세대가 더 많이 했다고 한다.

> 죽도록, 이때도록 살아도 남편이 나 모르게 하는 게 많아. 곡식할 때는 내가 (농사지어) 장만해서 조천, 조천장에 등허리에 지고 강 팔아 숟가락도 사고 사발도 사고 애기 옷도 사고 영해 오는디, 이제 삼십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전에는 경했는디. 삼십년 안에는 밀감나무 다 심어버리니까 십원짜리 하나 나 보지를 못하여. 밀감 팔면 남편 통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남의 일도 행 살아야겠다.' 직장이 없어 부니까. 생각해서 남의 일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이 벌어져. 그 때 버는 건 신랑 안주고 나 재량으로 써야지. (중략)
(남편이) 재산을 팔아, 파는 걸 말할까, 팔아먹은 걸 말했을까, 팔아 돈을 줘시까. 제사는 13번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 할 때 영 다수 얼마 10만원 20만원. 이것만 갖다 줘. 내가 곡식 팔멍 제사·명절 상 차려. 어떨 땐 제사·명절도 안 해여. 말 안 해. 이렇게 셈이. 허허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제 영감이 없고. 이제 제사·명절은 막 줄이고. 줄연 아들신디 두 번 해연. 두 번만 해라 해연 맡기고. 영 살아보니 요렇게 편안한 일이 없어.(N)

N의 경우는 남편이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않고, 있는 재산을 가져다 쓰기만 한다. 일상생활의 영위는 온전히 N 몫이었다. N은 "사는 거 생각하민 아이고 기가 막히고. 이제야 막 행복해여. (중략) (죽은) 영감탱이는 생각도 안 나고." 말한다. 심지어 밀감농사를 시작했던 1970년대[25] 이후 N은 아예 '현금'을 만질 수 없었다는 사실은, 교육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통을 보여준다. 하지만 N은 그럼에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한다. 그것은 남의 집 일에 일꾼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모아왔던 돈은 자식들에게 분배해줬다.

N은 4·3 이후, 본동 복귀 직후에 혼인한 아방 이신 어멍이었다. 하지만 혼인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군대에 입대해 7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N은 아방 이신 어멍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을 다시 만들어나갔다는 시기는 혼자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남편이 육지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생활이 편안해지기는

25) 정치적 격변기였던 이 시기는 경제개발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받고자 하는 시기여서 중앙정부 차원이 경제개발정책이 여과 없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발정책은 제주사회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고구마와 유채로 환금작물경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70년대 밀감농사가 본격화된다(김창민, 1995). 호미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밀감을 심고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해졌다'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다.

> 희철이 각시도 어렵게 살았어. 되게 어렵게 살았어. 남자가 일을 해야 뭐가 되지. 우리 집에 어머니가 오다 보니까, 비탈에 그 희철이가 앉았더래. 그런데 각시가 그저, 짐을 확 실어 나르면서 비탈을 올라가는데, 그 비탈에 구경하고 있대. 그거 일 못 허는 게. 그저 떠드는 거나 허지. 갸이는 타고나길 못한다게. 각시 고생했지.(J)

희철이 각시는 Y로, Y의 남편은 N의 남편처럼 일을 잘 하지 못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 하르방네는 성담(4·3 전략촌) 살았어. 하르방네 살면서 보초서랜 허난, 하르방은 이제 성담을 지키다가, 그 폭도가 들어오난 뭔가 던져서 맞추라고 허는디 던질 생각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이불 씌워 드러누우난, 그래도 (폭도가) 저쪽 끝으로 나가버려 살아.[26] 그래서 하르방 이제도 온 정신 아니. 막 그냥 겁나서, 깜짝 놀라 도망쳐왔다고 하는데…, 덜떨어진, 모자란 상태로 지금까지 살암수다. 아저씨 이제도 우리 없으면 막 겁나해여. 이제도. 어디서 넥타이 맨 사람만 들어와가도 숨어 불고. 겁나, 겁나. 하르방도 소학교 다닐 때는 똘똘했주게. 동창들은 다 높은 사람으로 살단 죽고. (중략)이놈의 사태 때문에 우리는 망한 사람들이주게.(Y)

Y에 의하면 그녀의 남편은 4·3 당시 폭도를 만났던 후유증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본디 소학교 다닐 당시까지도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4·3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온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Y의 남편은 생존 남성이었지만 생존 남성의 특권을 누리기보다, Y가 가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Y 남편 보다 심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나, 남편이 후유장애를 가졌을 경우 아방이신 어멍에게는 돌봄노동이 가중된다. 4·3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있지만, 이어진

26) 1949년 음력 5월 5일 단오날, 무장대의 습격이 있었다. 이 대치로 마을 사람 몇몇이 부상 당하고, 2명의 무장대가 사살당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가진 이도 있다. 남편이 장애를 갖고 돌아온 경우 '아방 이신 어멍'에게는 경제적 부양 뿐만 아니라, 남편의 아픈 몸과 마음을 돌보는 노동이 가중되었다.[27]

또한 많은 '아방 이신 여성'들은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4·3이라는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이 남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살, 전쟁, 재난, 고문, 전투 경험 등 거대한 폭력은 트라우마가 되어 삶을 지배한다. 이 트라우마는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발현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이것이 보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28] 4·3의 경우, 48년부터 이루어진 학살과 도피, 고문의 기억도 있지만,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남성들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징병의 경험이 추가된다. 결혼 후 바로 군대생활을 시작했던 N의 남편처럼, 많은 제주 남성들은 빨갱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하고, 월남전에 참전했다. 전쟁에서 돌아온 제주 남성들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지, 군대에 가지 않았어도 이미 제주 안에서 거대 폭력과 죽음을 경험한 남성들의 고통은 어떠했고, 그 고통이 귀환 후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하지만 다른 사례와 증언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추측하건대, 남성들의 고통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발현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막 무식하게 막 팼잖아. 무식하게 팼어.

---

27) 타 지역의 아방 이신 어멍인 김순홍은 남편이 만기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심한 통증 때문에 광란이 난 사람처럼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돌아 왔을 때 어린 세 아이를 혼자서 돌보기도 힘든데, 아픈 남편의 병수발까지 해야 해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나왔다며 그 당시를 회고한다.(김순홍, 2018)

28) 한국전쟁에서 상이군인이 된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쟁 트라우마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약한 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상이군인과 결혼한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자였고, 평생을 상이군인의 몸에 남아있는 국가폭력을 견디면서 생활해야 했다. (이임하, 2010)
베오그란드에서 있었던 가정폭력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전시에는 국가 민족간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폭력이 용인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군인이나 재향군인은 전쟁터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신경질적, 비관용적, 공격적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남편들은 좌절하고 이를 가정폭력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알코올 소비 증가도 가정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강윤희, 2011)
5·18 시민군 기동타격대의 삶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시민군 기동타격대의 고문, 폭행, 고통, 공포감, 모욕의 기억은 공격적 형태로 주변인에게 발현되어 그들의 가족이 고통받았다. 이로 인해 결국 기동타격대의 60%가 이혼을 경험하거나, 가정불화로 가족간 관계가 악화되었다.(강은숙, 201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게난. 우리 집에 놀러오는 어른들도 하르방한테 매 맞아도…. 우리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러 오멘.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게.(E)

그런데 좀 잘 못 되면... 두드려 패고. 그런 게 있지. 그런 거 있어.(J)

아이고게. 남자들 속 썩인 이야기는 천지만지주만은 그런 말 해서 무엇할꺼. 살아온 역사가 뭐…. 우리 애기들 욕도 안하고 키우는 마음으로 살아왔주.
저 아랫동네에 나 동서 있어. 그 사람도 참…. 시아즈방 어릴 때 나랑 같이 살 때 잘도 좋던데, 딴 사람 되더라. (각시) 막 두드리고. 나쁜 인간들 많아. 있어.(Y)

수형이는(생존 남성) 집에 들어가서 솥을 몇 번이나 부셔 버렸어. (그 각시는) 그렇게 사는 삶이 삶이더냐. 그래도 아들은 서너 개 낳았는데, 서방에게 계속 매 맞으니까 (각시) 그냥 죽어 불더라. (J)

남편의 폭력은 어두운 가정사로 치부되어 공적 장소에서 자주 이야기되지 않는다. 동시에 너무 많이 있었던 흔한 일이라 이야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4·3 이후 많은 아방 이신 어멍들이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아방 이신 어멍들이 남편을 이야기하는 표현은 양가적이다. '아방 때문에 고생해도 남편 없이 사는 홀어멍들 보다 내가 낫지.' 싶으면서도 '이 없는 것만 못한 하르방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 홀어멍이 남성권력에 보호 받지 못해 남편이 아닌 남성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면,[29] '아방 이신 어멍'은 합법적인 가족 관계-부부 관계 하에서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 · 3 이후, 호미마을의 기형적 성비 불균형은 마을의 경제 구도를 비롯해 노동방식, 권력 구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호미마을 여

29) 4.3 당시 여성의 몸은 빨갱이의 몸으로 재현되며 폭력의 대상이 되었으며,(김성례, 2001) '홀어멍'들의 몸은 주인이 없으면 아무나 침범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서청과 군경의 성폭력이 잇따랐다.(이정주, 1999; 2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들은 이 변화를 7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마을에 함께 살며 경험해왔지만 여성의 수난사를 상징하는 존재로 발굴된 '홀어멍'과 달리 그 외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4·3이 만들어낸 성비불균형의 공간에서 호미마을 여성들이 살아왔던 삶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홀어멍'과 '아방 이신 어멍'의 지칭에 상관없이 호미마을의 여성들은 극심한 성비불균형이라는 구조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다. 남편의 상실이라는 기준은 여성들 중 누가 더 큰 고통을 겪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4·3의 폭력이 일상에서 여성에게 행해지던 차별을 강화시켰고, 여성들이 겪은 남성과는 다른 형태의 고통이 존재했으며, 이는 평화 속에서 비가시화 되었던 폭력이 강화되었다(이정주, 1999; 2000)."는 분석에서 "평화 속에서 비가시화 되었던 폭력의 강화"는 홀어멍에게는 '남편 상실'과 '성비불균형 현상'의 접합으로 4·3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눈앞에 드러났고, 아방 이신 어멍에게는 4·3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일상적 모습의 심화로 드러났다. 아방 이신 어멍의 경험은 '4·3 이전에도, 당시에도, 이후에도 언제나 있었던 일로, 그 시대 여성들이 겪었던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집안 사정으로 치부되어 개인의 몫으로 넘겨지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시켜 왔다.

또한 '홀어멍'과 '아방 이신 어멍' 이라는 위치는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뒤섞이는 혼인관계 속에서 이들의 위치는 얼마든지 전복되고 변화되는 것이었다.

Ⅲ장에서는 4·3 폭력의 여파가 마을에 가져온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수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호미마을 여성들의 경험을 수난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들을 활용해 이를 생존전략이자 자원으로 삼아 4·3 이후를 돌파해왔기 때문이다. 이후 Ⅳ장에서는 다종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서 살아왔던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다양한 연대의 구축과 활용

호미마을 여성들이 4·3 이후의 마을이라는 시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졌다고 이야기되는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었지만, 그곳에는 온갖 폭력과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남은 사람들과 다양한 연대를 구축하고 활용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4·3의 경험과 상흔으로 인해 마을 내 관계는 이전과는 다르게 구성될 수 밖에 없었다. 4·3 이후 사라진 사람들의 공백과 폭력의 기억은 일상을 재배열했다. 일상 속에 녹아들어간 4·3의 경험은 상상치 못한 여러 부분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으며 기존의 관계에 균열을 내기도 했다. 먹고 자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일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상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또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수행해야하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호미마을의 여성들이 4·3 이후를 살아왔던 다양한 방식과 네트워크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1. 마을의 다양한 층위

먼저 호미마을 여성들이 살았던 공간인 '마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지치 노리코(2014)는 본래 마을이란 확고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존속되어 온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는 아니며, 마을에는 가족과 동족, 친구와 이웃 등 많은 관계와 집단이 현실에 대응하고 선택하는 생활과정에서 마을이라는 생활세계가 생성된다고 설명한다. 이지치 노리코의 개념에 의하면, '마을'이라는 생활세계는 '확고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존속'되어 온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아니다. 하지만 마을은 어떠한 공동체의 일원(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리적·물질적으로 구획된 토지와 같은 이미지로 그려지곤 한다. '많은 관계와 집단이 현실에 대응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을'이라는 생활세계의 경계는 단순히 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상에 구획된 읍·면·동·리를 뜻하는 경계선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실제 호미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호미마을'이라는 지리적으로 구획된 공간을 넘어서 교류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쓸모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고 변용하면서 살아갔다.

> 사태 후에는 여기서 일할 거 없으면 김녕 가서 아침에 내려가, 그날 일해서 품으로 쌀 한 사발…, 조금 받아오면, 집에 와서 (자식들) 밥해 먹이고, 또 내려가 일해서 쌀 받아오고, 경하멍 살았주. 김녕은 불 아니타니까. (J)

> 우리 호미마을은, 호미마을곶 그게 우리를 살려 준거나 마찬가지야. 그 나무로 해가지고 숯 묻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것도 그때 마차도 없어가지고... 지어서 시에까지 팔아 와가지고…. 그때 쌀 이렇게 해서 조금 받았어. 그럼 하루 종일 걸리지. (R)

소개령과 함께 마을 내 집과 가재도구들은 모두 불에 타버렸다. 소개지에서, 전략촌에서, 후에 돌아온 마을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자원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당장 먹을 것부터 구하기 힘들었다. 그런 호미마을 사람들이 당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을 움직여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식량을 구해오는 일이었다. 이웃마을인 김녕은 상대적으로 4·3 피해가 덜했던 마을로, 호미마을 사람들은 김녕처럼 4·3 피해가 적은 마을들을 활용했다. 하루 일을 해주고 하루 품삯으로 쌀을 조금 받아와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거나, 4·3 피해가 덜한 마을에서 비교적 싼 가격의 물자를 사서 다른 마을에 파는 방식을 이용하곤 했다. 호미마을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자원인 마을 근처 숲의 나무로 숯을 만들어 시내까지 지고 가 팔기도 했다.

마을 복귀 이후 점점 더 남성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다른 마을에서 '남성 노동력'을 빌려오기도 했다. 성비불균형 현상은 마을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마을로 돌아와서 제일 우선시 되었던 작업인 '집짓기' 작업은 "타지의 목수를 빌어 와" 진행했다. 남성 노동력과 기술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러한 측면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한 10대 후반의 미혼 남성 역시 많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아직 혼인하지 않은 10대 후반의 여성들은 성비가 맞지 않아, 마을내혼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외지 사람과 혼인하게게 되면서 혼인망의 확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4·3 이후 새로 마을로 유입된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이었던 제주로 대거 이주해왔던 피난민 중 많은 수가 제주시내에 정착했는데 그중 호미마을에 정착한 이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북에서 온 그 가족 역시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갔으며, 타지가 고향이지만 고향을 떠나 호미마을에 정착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호미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외부 자원 이용에 관한 것이라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형태의 이동도 존재했다. 이러한 형태의 이동은 후에 호미마을 사람들의 삶을 그곳과 이어주는 또 다른 연결망이 되었다. 4·3 이후 호미마을의 인구 이동은 꾸준히 일어났다. 호미마을에서 일어났던 죽음과 폭력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았던 이들, 마을로 돌아와서 4·3 당시 일어난 관계 속에 재입장하고 싶지 않았던 이들은 고향이 아닌 타지 정착을 선택했다.

> 4·3 사건이 해제됐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호미마을에 살 꺼 아니라고 돌아오지 아니핸. 이웃 해변마을 살단 돌아가부런. (면담자 : 아…, 아예 돌아오실 생각도 아니한거구나.) 응. 생각도 아니 하고. 어디 잡혀가서 하도 두드려 맞고, 언니랑 어린 아들들 모두 죽어불고 허난, 호미마을은 오고 싶지 아니하다고. (Y)

Y의 아버지는 호미마을사람이었지만 이웃 해변마을 정착을 선택했다. Y의 할아버지는 훈장으로 마을에서 인망 있는 인물로 불리웠고, 그의 집안은 4·3 이전에 마을 최초의 정미소를 운영할 정도로 입지가 있는 집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4·3 이전에는 마을의 유지계층이었고, “산사람으로 일어났던” 주 세력인 안씨 집안은 일본으로, 제주시로, 타 지역으로 흩어졌다. 증언자들은 안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 때면 복잡한 심정에 빠지는 듯 했다. 그 크고 번성하던 안씨 집안 사람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어디론가 사라진 현실에 착잡해하며 영원한 부귀는 없고, 자식, 명예 등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의 불가능함에 대해 이야기하시곤 했다. 현재 호미마을에 안씨는 두 가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똑똑한 청년들이 마을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걱정된 이들이 생존 아동, 청소년 중 똑똑한 이들을 제주시나 육지로 피난시키듯 이주시키는 현상도 나타났다.

> 쪼끄만 사람은 4·3사건에 공부시킨다고 다 내보냈주. 다 남자들은 공부 시킨다고. 육지로. 제일 가까운 데 보내면 김녕. 제주시. 좀 덜떨어진 사람들만 여기 남았주.(N)

> 할아버지(남편)는 육지 살았어. 이디서 살다가... 하도 여기 어려우니까 육지가 살았지. 육지 강 조금 살다 군인 간. 일을 안해 봔. 나 왔더니 일 할 줄을 모르더라게. 어릴 때 육지에 있다가. 고모도 어디 광주인가? 어디 살았지. (면담자 : 여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니, 돌아가기 전에. 육지 가서 살면서 어디 다닌 모양이라. (공부 시키려고 육지 보낸 거?) 아마도…? 그래서 여기 나 온 때도 영감은 일을 잘 할 줄 몰라. 남자들 밭 일 해도, 일 안해. 우리 요 옆집에 여자는 하르방이영 계속 일하러 다니는데 부럽더라.(K)

> 여기 사니까, 여기서 공부도 못하고, 부산 가야 공부한다고 해서, 자갈치(부산) 고모가 한 분 있으니까, 그 고모가 데려가서 (남편-할아버지는) 부산 중학교 나완.(D)

K의 남편은 4·3 당시 10대, D의 남편은 5-6살이었다. 이는 4·3 이후에도 한동안 남성 죽음으로 인한 성비불균형 현상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남성부재' 가 발생해 성비불균형 현상이 한동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어린이·청소년층의 이주도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남성 어린이·청소년의 이주는 학업을 위한 것이거나 아직 불안정한 제주에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폭력에 대비한 도피를 위함이었고, 이후 고향으로의 복귀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상황이 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랐다. 부모를 모두 잃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R의 누이동생은 어린 나이에 대전으로 식모살이를 떠났다. R의 누이 동생 경우처럼 여성들의 이주는 공부·도피보다는 어려운 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측면이 더 컸다. 또 이주 후에는 K와 D 남편의 고모들처럼 남동생의 아들을 지키거나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지점에서도 가부장제의 부계지향성이 드러난다.

호미마을에서 이주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일본이었다. 식민지 시기, 제주도민의 일본 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지배에 의해 제주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많은 이들이 도일을 결심·실행하게 된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중공업을 육성하던 일본 자본가들은 제주를 저비용 노동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 시장으로 겨냥했고, 제주-오사카 항로를 통해 거대 여객 선박이 운항되기 시작했다. 목포나 부산보다도 일본과의 왕래가 훨씬 빈번했을 정도였으며, 제주사람들의 도일은 1934년도 재일본 한인 가운데 제주도출신자가 5만명을 상회해 당시 제주도 인구(약 20만명)의 4인 중 1인이 도일한 것이라고 한다(이창기, 199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안미정, 2008). 당시 일본에 재류하는 제주 출신 여성만도 2만 688명에 달했으며(서지영, 2010), 이는 5만명으로 일컬어지는 재일제주인의 절반이다. 호미마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방 전부터 일본에 호미마을 사람 많이 갔주.” 같은 표현은 쉽게 들을 수 있다. 마을 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본으로 이주한 친족이 있었다. 그리고 친족들을 활용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호미마을은 제주의 중산간 마을이라는 지리적·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일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역시 배경으로 갖고 있었다.

R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 이주했다. R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3살이 된 R을 데리고 호미마을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니는 일본에 남고, 아버지, 누나, R만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혼인한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연결은 여전히 남아있어 이후 R은 성인이 되어 일본으로 밀항해 10여년을 살다가 돌아온다. Y의 언니도 4·3 이전 도일한다. 언니는 인근 해변마을 사람과 혼인해 함께 일본으로 이주하는데, 4·3 당시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면서 이후 Y도 일본을 오가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으로 이주한 이들은 친족들이 밀항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돈, 물건을 보내 이후 마을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동이 일본에 국한되어 진행된 것은 아니다. J 부부는 도일했던 마을 사람의 소개로 4·3 전 중국에서 1-2여년을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다. 호미마을은 주로 마을내혼이 이루어진 마을이지만, K처럼 해변 마을 출신인데 호미마을로 시집 온 여성은 혼인 전 제주 바깥 지역으로의 출가물질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을 비롯해 타지에 이미 친족들이 이주해있고,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본이나 육지로의 이동·이주가 호미마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삶의 기회이자 선택지가 되었다. 마을은 '호미마을' 이라는 지리적 영역에 갇혀 있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외부와 연결되고 변용되면서 구축되는 공간이었고, 호미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마을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부의 자원과 사람들을 활용해왔다. '마을'에는 땅으로 구획되어 제한되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구성원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으로 연결된 타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킹들이 여러 겹의 층위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필요한 순간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며 살아온 것이다.

2. 다양한 네트워크

"남들 도움 받은 거 없다. 다 이녁 힘으로 살았지.",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동생이고 궨당이고 어떻게 도와줘? 자기 애기 키우느라 바빴지."

이러한 감정과 표현은 증언자들 사이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4·3 이후의 지난했던 삶을 이야기 할 때나 주변의 도움을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나 역시 누굴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는 뜻이지만,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4·3 이후의 시공간은 각자도생의 공간이고 누구도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 고립된 공간이었다. 실제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기에 도움을 주고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면 마을 구성원들과 서로 주고받았던 도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친족 네트워크 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서 살아온 호미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삶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4·3 이후 급격히 피폐해진 삶은 이러한 일상적 도움·나눔 등 지원체계의 축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때문에 '도움이 없었다.', '이녁 혼자 살았다.' 등으로 표현하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에 비해서 도움의 규모가 '축소'된 것 뿐이지, 네트워크 속의 주고받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본인 살기 바쁘고 힘들어서 자신만 살 수 밖에 없었다.' 라는 표현 속에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네트워크 속 지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1) 친족네트워크

친족체계라는 기본 구조에 실제생활하면서 형성되는 그 이외의 관계가 덧붙여지며 생활세계는 성립된다(이지치 노리코, 2014). 특히 마을내혼이 주를 이루었던 호미마을에서 친족 관계는 당시 모든 관계의 기본구조였다.

호미마을의 친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친족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주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여건 등의 요인으로 육지와 같이 주자주의적 세계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놓이지 않아 가족의 구조나 성격이 유교적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실제 생활에서는 오히려 여성적 세계관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 원리가 되고 이념 체계에서는 남성적 세계관이 존중된다. 그 결과 남녀 지위의 평등성, 부계친과 외척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나타나면서도 유교적이고 부계적인 사고가 공존한다(이창기,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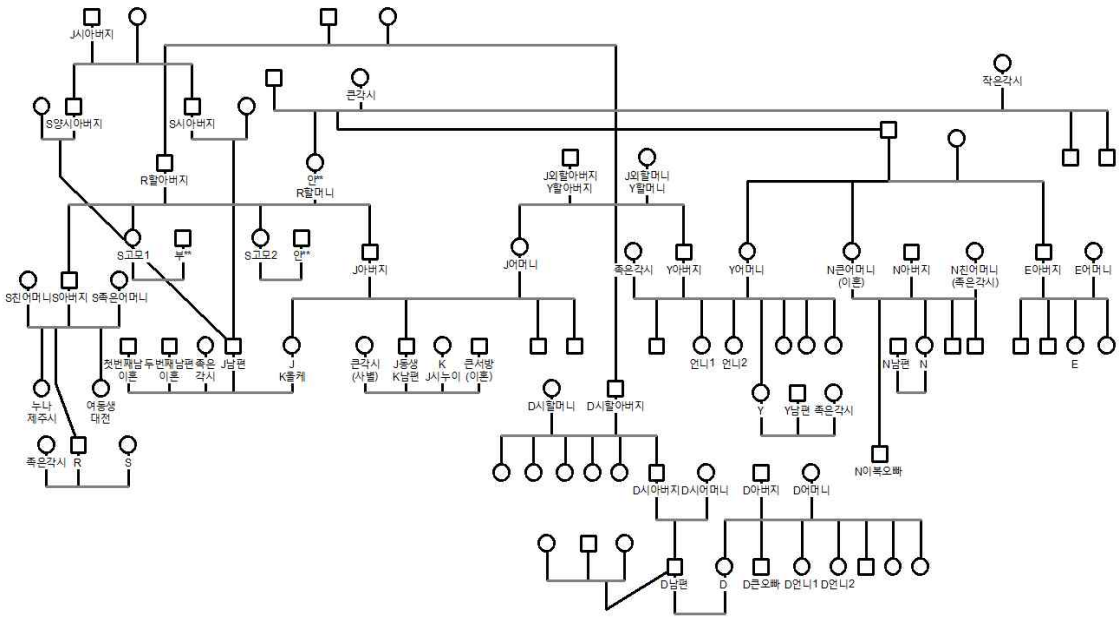
스스로 반촌임을 위시했던 중산간 마을- 호미마을의 경우에는 촌락내혼 중심의 통혼권으로 인해 같은 마을 내에 혈족과 인척이 중첩되었다. 이는 곧 촌락내혼에 따른 혼인망으로 지연과 혈연에 중복이 생김을 의미한다. 가문의 혼맥은 같은 마을, 인근마을과의 혼인, 연줄 혼인에 따른 부찌사돈(겹사돈) 네트워크를 근친끼리 형성함으로써 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일생생활에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통혼권과 혼인망의 형성은 마을 내 친척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나 사회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생활에서 인척의 비중이 부계친족의 기능에 못지 않은 참여와 영향력의 행사로 나타나게 된다. 혼인망에 의해 마을 내에 형성되는 일상적 네트워크도 부계친 위주로만 짜여지지 않았다. 외척이나 처족과의 평상시 유대와 결속이 강화되었고, 친정과 기혼자매의 근거리 거주는 평상시에는 시집 친족과의 상호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용 빈도가 잦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친정 친족과의 결속이 강화되는 현상이 드러난다. 인척과의 유대강화는 여러 측면에서 부계친, 모계친 사이에 동등성이 실현되고 있다(김혜숙, 1999).

호미마을 사람들 역시 “호미마을 남 없어. 다 궨당이라.”고 말한다. 김창민(2020)은 궨당을 혈통을 매개로 한 관계와 혼인을 매개로 한 관계의 합이며, 특정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와 혈통 또는 혼인으로 이어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친족집단이 아니라 친족관계이며, 조직화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이다(김창민, 2020).

궨당으로 표현되는 호미마을의 친족관계는 다음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해진다. 아래 <그림1>은 조사 대상자들의 관계를 가계도로 표현한 것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자가 조사자를 선정,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의 가계도를 살펴보니 이들은 ‘궨당’으로 불리는 커다란 친족관계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1. 조사대상자 관계도[30]>

30) 가계도에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표기된 것은 아니다. 이 가계도는 조사대상자들의 관계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관계의 일부와, 조사 대상자들의 자식들은 생략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계도를 살펴보면 이들은 모계친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관계도에 등장하는 다수가 한 마을에서 살았다. 한 마을 안에 모계친족과 부계친족의 대다수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가계도상의 혈연으로만 연결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연결고리를 매개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확충하고 스스로가 타인에게 그 자원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살아왔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친족관계가 4·3 이후의 마을에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다양한 친족관계의 연대

> 홀어멍이 돼도, 이녁 궨당집(생략된 맥락 상 시댁 네트워크를 의미함)으로 어찌어찌 살았주. 친정에서도 도와주고. 아예 친정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Y)

Y는 홀어멍이 된 사람들이 부계와 모계 친족 네트워크를 모두 이용하면서 살았다고 말한다. Y의 이러한 이야기는 D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둘째 언니네 신랑이 잡혀갔어. 우리 조카는, 이제 애는 아빠 얼굴 모르는 아이. 밴 때 그냥 잡혀가버리니까. 에휴. 경허난. 어멍 혼자 아니?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 있으니까 같이 살았지. 우리 둘째 언니랑 그 아들을 같이 데려다 같이 살았주게. 우리 칠남매랑.
> 그렇게 살다 언니가 병이 나 죽었어. 애기는 이제 아홉 살, 열 살 되면서 머리가 커지고, 외할아버지랑 계속 살기가 좀 그랬어. 자기 길 찾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싶어서 함덕에 사는 조카 큰 아버지네 갔어. (큰 아버지가) 데리고 살겠다고 해서 거기서 살기로 했어. 그런데 다음에 가보니 학교도 제대로 안 시키는 거라. 자기네 애기는 학교 가고, 우리 조카한테는 퇴비 만들 쇠똥 담으러 다니라 시키고. 아이는 하도 어려운 때고 못 먹어서 크지도 않고, 가늘고 약하고. 그래서 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 데려왔어.

그랬더니 서울에서 경마장하는 사촌 오라방이 그럼 너는 말 타는 걸 해서 돈을 벌지 않겠냐고 해서 서울을 데려간 거주. 경마 타서 돈을 벌언. 강남 아파트도 몇 개 살 정도로.(D)

D는 실제로 홀어멍이 된 언니와 조카와 함께 살았던 사례였다. 언니의 남편이 잡혀가 돌아오지 않자 D의 언니는 홀어멍이, 조카는 유복자가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자 된 딸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모두 다 같이 살았다. 하지만 언니 역시 일찍 세상을 뜨게 되자 언니의 아이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된다.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의 부계친 쪽으로 아이를 보내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침 인근 해변마을에 살고 있던 아이의 큰 아버지는 이에 응했고 아이는 큰 아버지와 살게 되었지만, 생각만큼 아이가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집으로 데려온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다른 친족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D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홀어멍이 된 여성에게 딸의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모계친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딸이 죽자, 아버지 친족이 아닌 어머니 친족이 ○씨 집안의 아이를 계속 키워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부계 중심 질서'의 사고가 중심이었기에 결국 아이의 부계친인 큰 아버지와 논의 끝에 아이 돌봄 역할을 바꾸었다. 하지만 이 역시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지 못하자 D의 사촌 오라방인 권당이 아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홀어멍의 자식이었던 D의 조카는 홀어멍의 모계친족(어머니의 부모가족), 부계친족(아버지의 형), 권당(D의 사촌 오라방)이라는 다양한 친족들의 도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시아버지 죽고, 시어머니 홀어멍 되어부난, 우리 하르방이 고모가 다섯 사니까 고모가 데려가버렸지. 여기 살면 공부도 못하고, 부산 가야 공부한다고 해서, 자갈치(부산 사는) 고모가 한 분 있어서, 그 고모가 데려 가 부산 중학교 나왔어. 그런데 대전 작은 고모가 좀 잘 살았어. 그래서 대전 고모가 우리 하르방 회비, 먹는 쌀은 다 주어서 갔지.(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의 언니도 홀어멍이었지만, D의 시어머니 역시 홀어멍이었다. D의 시아버지는 강제 징용되었다가, 그가 탄 배가 기뢰에 맞아 죽음을 당했다. 죽은 시아버지에게는 다섯명의 누이가 있었고, 그 중에 2명의 누이는 육지에서 살고 있었다. 4·3이 터지고 고향의 상황이 좋지않자 D 시아버지의 누이들은 죽은 남자형제의 가족들을 걱정한다. 그 끝에 남자형제의 아들인 D 남편을 육지로 데리고 와서 공부도 시키고 돌보기로 한다. 그리고 좀 상황이 나은 누이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부산 누이는 실제 조카를 맡아 키우면서 교육시키는 역할을, 대전 누이는 학비며 식비 등의 실제 생활비를 대주는 역할을 한다. 혼인함으로써 남의 식구가 되어 친정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타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의 상황을 살피고 지원하는 친족 네트워크의 가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 어떤 면에서 여성들에게 가중되었던 남자 형제의 부양 역할이기도 했다.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자 아이는 도피시켰지만 여자 아이는 그렇지 못했고, 교육과 지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E의 사례는 마을 내의 친족들의 결합을 보여준다.

>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네 또래가….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뭐를 자꾸 물어보려고. 이렇게 뭐, 가정사 답답해도 왕 의논하고, 모르는 거 있어도 오고 경하는디, 우리 집에 할머니들이 일곱 분. 일곱 분은 항상 왔어. 요 어른 와서 가면 요 어른 들어오고, 요 어른 왔다 가버리면 요 어른 들어오고. 또 다섯 여섯이 앉아 막 농담허멍 웃고, 그렇게 했었어. (뭘 그렇게 의논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 우리 여자들, 아가씨들 놀러가듯이. 모여 앉으면 '아이고 누구집은 그랬지.' 해라, '누구네 집은 그랬지.' 해난, 서로 그렇게 허고 헌디.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 할머니 한 분만 할아부지 있었다. 노상 노는 어른은 다섯, 여섯명 되고. "아주버니 계십니까? 물어보러 왔수다." 하고 찾아오는 어른까지 허면은 한 일고여덟명 되는 듯 허다. 그런 거 같은 게. (그러면, 남자라서 의논을 하러 온 거에요?) 남자한테 오지! 집안에 뭐 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대부분 친척 어른들이라. 그 때는 안씨가 많았거든. 안씨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었어.(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생존 남성이었던 E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E의 집에서는 매일 홀어멍들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안씨 집안의 홀어멍들이었다. 많은 안씨 젊은 남성이 입산했기 때문에 안씨 집안에도 홀어멍들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J에 의하면 살아남은 E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일은 못하는 편이었지만, 지식이 좋고 점잖은 성품을 지녀 4·3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조언을 구하곤 했다고 한다.

E의 집은 홀어멍이 된 안씨 집안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했다. E의 집을 구심점으로 삼아 일상적으로 오가며 혼자 결정하기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논할 수 있는 일종의 모임이 형성된 것이다. 이들은 안씨 집안이라는 친족 집단의 이름하에 모여 어려운 일을 의논했다. 지식이 있고 현명한 권위 있는 남성에게 집안일의 자문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여자들, 아가씨들 놀러가듯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E의 표현처럼 여성들끼리 수다 떨고, 자신과 이웃, 친족들의 일과를 나누며 일상생활의 고민이 나누어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댁-'안씨 집안'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모이는 7-8명의 여성들 중 2명만 아방 이신 어멍이었으며, 5-6명은 홀어멍들이었다. 아방 이신 어멍과 홀어멍이 함께 '안씨 집안'이라는 친족집단으로 공통적으로 엮일 수 있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홀어멍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족한 '남성 노동력'의 공유 또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또 어떠한 순간에는 홀어멍들끼리 나눌 수 있는 고민들이 나누어졌을 것이다. 즉, 이 모임은 안씨집안 여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 토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 경허여도 큰 어멍의 큰 아들이 쇠장수 말장수를 하더라고. 이 아들이 동생도 볼 겸, 왔수댄 허멍 자꾸 이 영훈이 어멍[31]을 찾아 댕겨. 영훈이 어멍은 그 아들 오면 막 좋아해주게. 그런데 이제 나이 드난, 자기 죽으면 큰 어멍 쪽에 묻지 말라 했어. 그런데 아들은 우리 집에 와서 말하길, 큰 어멍네 산 쪽에, 땅에 묻을 거래. 그 큰 어멍네 형제들이랑 벗어지지 않으려면 경해사주게. 게난 형들이 좋아하니까, 큰 어멍 난

31) 영훈이 어멍(가명)은 선행연구의 주 조사대상자로, 현재 생존해 있지만, 요양원에 계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형들이 영훈이 좋아하니까 그럴만도 허주게. 자기 혼자면 어떻게 살 거야. 큰 할망 난 애기들이랑 형님, 형님 하면서 멀어지지 않아야지. (D)

영훈이 어멍은 타지역 남성와 혼인했으나 친정에 있던 시기에 4·3이 시작되었고, 남편도 예비검속 때 죽어 홀어멍이 되었다. 그는 고향이자 친정이 있는 호미마을에서 친정 식구들과 살면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했다. 서울에 상경해 돈을 벌어 남동생들을 키웠고, 그 때 서쪽 지역 출신 남성을 만나서 아들을 하나 얻어 돌아왔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향에 이미 혼인한 각시가 있었다. 제주로 돌아온 그는 고향에서 주로 생활하되 종종 호미마을을 오가며 살았다. 하지만 이를 용납하지 못한 고향의 큰 각시가 남편 몰래 아들과 호미마을에 찾아와 싸움이 났다. 영훈이 어멍은 자신은 그쪽 집안과 연결되지 않을 테니 자신이 낳은 아들 하나는 자신이 키우게 해달라고 사정해 아들과 계속 함께 살 수 있었다. 4·3의 영향으로 중혼이 이루어졌으나, 이들은 함께 살기보다 관계를 끊는 것을 택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각시의 아들은 동생을 보러 왔다는 이유를 대며 작은 어머니인 영훈이 어멍과 아들을 보살핀다. 큰 각시와 작은 각시의 사이가 좋지 않고, 영훈이 어멍은 두 번째 남편의 친족과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큰 각시 자식과의 네트워크가 또 다른 형태의 '부모-자식' 관계로, 친족 지원체계로 기능한 것이다. 영훈이 어멍 역시 큰 각시의 아들의 보살핌을 기꺼워했으며, 이 네트워크를 유지해나간다.

영훈이 어멍과 큰 각시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훈이 어멍은 사후에도 그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그 집안 묘지가 아닌 별개의 장소에 묘를 부탁한다. 하지만 이복형제들과의 네트워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아들은 이를 거절한다. 그리고 D는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복형제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아들의 말을 지지한다.

하지만 영훈이 어멍이 주로 활용했던 것은 친정 네트워크였다. 본인이 직접 동생들을 부양하기도 했으며, 영훈이 어멍이 마을 부녀회장 등의 입지를 가질 수 있었던 기반에는 영훈이 어멍의 모계 친족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D 언니(홀어멍)와 조카, D의 시어머니(홀어멍)와 남편, E의 홀어멍 궨당들, 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훈이 어멍(홀어멍)의 사례를 보면, 호미마을의 여성들은 친족 네트워크를 다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부계·모계, 직계·방계 등의 친족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생존을 위해 여러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관리하면서 살았으며, 조금 더 형편이 낫다고 생각되는 친족들은 자신이 가능한 선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하의 부계 네트워크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다.

(2) 제사의 연대

조상제사는 고조를 중심으로 한 종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재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김미영, 2010). 그렇다면 제사 참여 자체가 친족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유대를 끈끈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재생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서 제사는 몹시 중요하게 여겨졌다. 사람들은 죽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적귀신이 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으며,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에게 더 잘해주었다(이창기, 1999).

제주에서 궨당(친족)은 제사를 유지시키는 중추적 조직이기도 하다. 궨당의 연대의식은 '일반적 공동체성보다 훨씬 높다고 이야기된다. 어려웠던 시절 궨당은 협동의 구심점으로 서로를 도와야 하는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사, 혼례·상례 등의 집안 대소사, 갑작스런 재난 등은 이웃과 궨당의 도움으로 함께 이겨내야 했다. 세력이 큰 궨당의 일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삶의 안전이 보장됨을 의미했으며, 궨당 공동체는 강력해질 수 밖에 없었다.(이재은, 2012)

4·3으로 인한 친족 공동체 구성원의 죽음으로 친족공동체는 균열을 맞았다. 공동체가 한번 뒤틀린 상황에서 누가 제사를 승계할지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수행되는 제사는 친족의 경계를 재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제대로, 정성껏, 화려하게 수행되는 제사는 집안이 다시 재건되었음을, 무사함을 보여주는 증명이기도 했다.

> 바로 옆집이 친척집이니까,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이 다 와. 외가 친가 다 오다보면 30명은 기본이라. 그 제사 먹으러 오는 사람이. 딱 밥하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만 간신히 했어. 나물하고. 그래도 제사 먹으러 오면 이제 그냥 오지는 안 해. 요만한 사발이 있어. 쌀 가져다니는 사발. 그 사발로 쌀 하나를 가져와. 가져오면 이제 갈 때는 이제 쌀 가져온 사발에 밥을 담아주지. 밥을 담아주고 다른 것... 지금 막 뭐 지지고 볶고 하니까 그런 거 주는데, 줄 게 없잖아. 채소도 고사리 채소 조금 주고. 그렇게 살았어. (중략) 그래도 상웨떡 만들 때는 진짜 가까운 친척들은 와서 그거 다 만들어줘. (S)

제사 당일 여성 친족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사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음식, 술 등을 준비해 갔으며, 물 부조를 하기도 했다.

제사도 우리가 막 하고 허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어려운디. 니네 어려우난 나 제사 한 번이라도 하켜.” 했어. “(아방이 일본가면 힘드니까) 아방이 제사 하지 말랜 하니까 나 안 하면 안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디(이웃집) 할망 있지? 지금 정신 조금 아득한…. 그분이 우리 가까운 삼촌이라. 그 삼촌이 “너 안하면 나가 하켜. 내불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삼촌네 집이 하는데 그 집도 (형편이 좋지 않아) 힘드난, 내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냥 다시 가져왔어.(S)

심지어 제사를 수행하는 집의 형편이 어려울 때는 다른 친족이 제사를 대신 수행해주거나, 제사를 나누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친족 관계와 유대를 확인하게 되기도 한다. S의 경우에도 R이 도일하게 되자, 이웃의 궨당어른이 제사를 나누어 가져간다. 하지만 그 친족의 집 역시 좋은 형편이 아님을 알고 있던 S은 힘들어도 자신이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나누었던 제사를 다시 가져온다. S의 사례를 통해 장자 상속이 이루어졌던 호미마을에서도, 상황에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제사를 친족들이 서로 나누어진행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 “우리 종손 각시 아니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껄... 우리 종손 각시 덕분에 우리 밥 제때 해먹엄쪄. 하루 밥상을….”(S)

R은 3대 독자였다. 아버지는 예비검속으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와 살다가 혼인한다. 송당에서 시집온 S는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제사를 진행해야했다. 아버지가 장남이 아니었기에 집에서 제사를 지내본 경험이 없었던 S는 제사집에 제사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나도 저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 노릇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제사를 수행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S는 최대한 정성껏 제사를 진행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친족들을 잘 챙기기 위해 노력한다. 그 노력이 어른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친족 어르신들은 ‘종손 각시’ S를 무척 예뻐했다고 한다. S 역시 소외되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이 없이 친족들이 모두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도 나눠갈 수 있도록 애썼다. 이러한 맥락에서 S의 사례에서는 제사가 친족 돌봄의 기능까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1년에 13번 있었던 제사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으며, 제사를 계기로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제사 후에는 아프거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사 음식을 더 많이 배분했다고 한다. 또 불참자들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면서 돌봄이 함께 수반되었다. 이웃에게도 제사 음식은 나누어지며, 이웃 역시 제사에 손님으로 찾아온다. 지연 공동체 역시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는 친족들을 보호하고 단합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긍정적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4·3 기간, 직후의 어려웠던 시절 제사 수행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사는 1년의 흐름 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했으며[32], 제사를 위한 물자를 마련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친족 공동체와 다른 선택을 하거나 그들의 권위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제재와 배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32) 제사는 긴 호흡으로 준비되고 수행된다. 제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흰쌀밥’을 올리기 위해서는 쌀농사가 안 되는 제주에서 밭벼(산디)부터 심어야 했다. 제사 때 올릴 나물을 구하기 위해서 봄이 되면 고사리를 꺾어 저장해둬야 했으며, 기름을 내기 위한 유채·참깨 등의 재배도 필요했다. 그 외에도 제사가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콩나물 키우기, 집 정비하기, 제주 담그기, 생선 구입해서 손질하고 말려두기, 돼지 고기 추렴하기 등의 노동을 해야 했다. 제구를 비롯한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일상적으로 수행했어야 하는 노동이었다. 특히 제사에 사용할 그릇(유기가 아닌 제사에 방문하는 친족, 이웃을 위한 식기류)이라던가, 묘제나 소분 점심에 지고 갈 제물을 담기 위한 구덕 등은 집에 있는 식기로 모자라 마을의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빌려와야 했으며, 아예 마을에서 몇 여성들이 그릇계를 조직해 운용하기도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는 친족 공동체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감정 노동이 이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제사 수행을 책임지는 여성의 경우에는 많은 친족, 어르신들을 맞이하면서 좋은 며느리로서 행해야 하는 태도와 자세, 표정 등을 신경 쓰게 되며, 제사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를 계속한다. 제사를 맡은 집은 제사 수행을 이유로 제월전(제사밭)이라는 재산을 더 받기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비난을 받았다. '재산을 물리고도 이렇게 제사 출렸다'는 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사를 수행하는 여성은 친족들과 조상신들이 흡족해 할 만한 제사를 차리기 위해, 꼬투리 잡히지 않는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제사 승계를 통한 토지의 상속은 '장남', 혹은 '장남 역할을 위해 들여진 양자'에 한정되는 경우였다. 실제로 '제월전 상속을 받은' 장자[33]와 상속받지 않은 형제들 사이의 감정씨름과 알력 또한 존재했다고 S는 이야기한다. K는 "제월전 안 받고 제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재산이 많은 집이나 제월전 받아서 부자 되는 거지, 재산이 없는 집에서는 그 땅에 농사지어서 제사 비용을 대라고 상속받는 제월전은 도움은커녕 제사를 치르기 위한 고된 노동과 경제적 부담만 부과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N의 경우에도 남편이 양자였으므로, 열여섯 번에 달하는 많은 제사를 치렀지만 이로 인한 금전적 이득은 남편이 독식했고, N에게는 제사 노동만 부과되었다.

제사는 위와 같은 한계와 동시에, 4·3으로 인한 친족의 죽음을 서로 위로하고, 생존한 친족들을 이어 이후 여러 종류의 직접적 연대(근황 나눔, 친족 돌봄, 어려운 공동 과제의 해결 등)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 역할의 측면도 있었다.

2) 이웃 네트워크

> 이북 어멍이, 아방 죽으니까 애기들 다섯이랑 들어갈 데가 없었어. 우리 알동네에서 막 모여서 흙이멍, 돌이며 다 가져다가 집 지어서 영 살게 만들어줬어. 특히 영훈이 어멍이 나섰지, 동네에 좁쌀도 한 되, 흐린 좁쌀도 보리쌀도 한 되, 있는 양 달라 해서 받아다 주고, 어려우니까.

33) 제주에는 형제들이 제사를 나누는 '균분상속'의 풍속도 있으나, 호미마을은 '장자' 상속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래도 우리 동네니까 그렇게 했어. 영훈이 어멍도 막 노력했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우리 동네니 쌀이라도 받아서 이 사람들 하르방 묻어도 밥 해먹으라 해야 할 거 아니우꽈?” 그저 누구 하나 데려 다니면서 보리쌀도 좋고 좁쌀도 좋고 다 좋으니 한 관씩, 한 되씩, 한 사발씩 모아 줬다게.(D)

4·3 이후 호미마을에는 다른 동네 사람들의 유입도 이루어졌다. 이북 어멍 역시 새로운 이주자 중 하나였다. 이북 어멍은 1·4 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와 호미마을까지 오게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이 왔지만 당연히 친족관계는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가족들 뿐이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북 어멍과 애기들만 남게 되었다. 홀어멍이었던 영훈이 어멍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가 나서서 이웃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웃들이 나서서 힘을 합하게 되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적은 양이라도 곡식을 나누었고, 아기들과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집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함께 집을 지었다. 이북 어멍은 친족 네트워크 속에 살았던 다른 호미마을 사람들과 달리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는 낯선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해야했지만, ‘이웃’이라는 네트워크 속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본동 복귀하고 나서)집 지을 목수도 못 빌고. 집을 짓잰 하고. 목수도 빌어와도 좋은 목수 못빌리니 아무렇게나 짓고 그냥 위에만 간신히 덮어 살잰. 집 지을 땐 어떻게 하냐하면, 집을 두어 개 지을꺼면 물을 지어가고, 흙 지어가서 집을 짓어. 그러면 다 저 집에 집 짓는댄 허민 동네가 다 나가. 허벅으로 물 길어다 마당에서 땅 파서, 흙을 깨어서 담에 탁탁 발라. 담 담으면서 서리 나무 걸치고 새 지붕 덮어서 집을 지어 살았주게.
집은 다 같이 지어야 될 거니까. 홀어멍들, 그런 어른네 집은 더 길어다 줘야 되어. 남자 없는 집은. 서로가.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주게. 근데 남자 산 어른들은…, 산 사람이 거의 몇 없어. 그냥 노인네 몇이나 있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목수 어디 타지 가서 빌어 오민, 외방 가서 빌어 오민, 이제 아무 집이 흙질한댄 하면 다 모여 가. 모여 가서 밥들도 어떤 집에서 해여 가고. 흙질하면서 먹으라고 점심을 해다 주는 사람도 있고. 방상 아니어도 동네에서 다 모인다. 도와주면서 집을 지어 살지. (Y)

이웃 네트워크가 가장 크게 작동하는 때는 집짓기와 같은 다소 규모가 크고 오래 걸리는 일을 해야 할 때였다. 특히 전략촌 생활을 마치고 소개 당시 모든 것이 불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마을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살 집을 짓는 일이었다. 복구를 위해 정부해서 지원해준 물자는 정말로 소량이었고, 집짓는 일은 다른 일보다 남성의 일손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남성은 정말로 소수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웃, 친족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했고, 남성들 역시 자신의 집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 난 혼자고 곁에 사는 친구가 시누이 서방을 신촌 사람인데 데려왔습디다. 시누이 서방 데리고 둘이 가서 나무를 해오캔. 남자 셋하고 다섯이 가자고 하는 거라. (중략) 그냥 산에 오르니 남자 둘이 같이 해불고, 그 시아주방 며느리네 같이 해불고, 남자 하나 어른이 나이 많은 어른이 있는데, “나 톱이랑 장비 가져오난, 아줌마랑 요거 다듬어. 내가 자르잰.” 해. 그 사람이 나무 자르고 다듬어 나는 꼬랑이를 메고, 남자 어른은 덩치로 메고. 그 어른이랑 둘이 열 세 개를 끊었어.(중략) 그 어른이 마음이 좋은 어른이라 나 여섯 개만 가지겠다고, 너는 일곱 개를 가지라고 허는 거라. 아이고 잘도 고맙수다 말했지. 이제 그걸로 집을 짓고….[34]

그녀는 나무를 해올 수 있는 트럭이 온다는 말에 친구와 친구 시누이 서방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간다. 호미마을의 적은 남성 수로 인해 인근 마을에 사는 시누이 서방이라는 타지의 친족까지 활용한 상황이었다. 같이 간 남성들은 그녀가 나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자신은 다음에도 또 올 수 있다며 같이

34) 제주4·3연구소 증언집에 수록된 호미마을 홀어멍의 증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나무를 그녀에게 더 많이 배분해주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례는 최대한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 여자들끼리 했주게. 칠성제라고. 일곱사람 제.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애기들 잘 키워달라고 하는 거야. 칠성제는 애기들 잘 키워주고 모든 거 편안하게 해주잰 하고 제 지내는 거. 그런데 하다보니까 나 혼자 나 혼자 서방 산 사람. 다른 사람 다 홀어멍. 그랬지. 난 그것도 몰랐는데 하다보니 이제 이장 어머니, “형님은 어쩌다 그런 제를 합니까?” “뭐가?” “다 홀어멍인데 어쩌다?” “그러게. 그것도 맞네.“ 나 혼자 끝.(J)

> 그 때 밥 대접, 접시, 수저 그런 거 해서, 내가 회장하면 맡아 뒀어. 1년에 누구 필요하댄 하면 가져가고, 돌려받고 했다가 회장 바뀌면 그 사람이 맡아가고. 한 20명? 15명쯤 될 꺼? 회원 아닌 사람들도 잔치할 때 빌어가고 싶으면 그 때 돈 내면 되고. 보통은 그 회에 든 사람들만…. 회원들은 다 몬딱 홀어멍들. 홀어멍 아니어도 나도 했어. 잔치 때 썼지. 그때 그릇이나 마나 뭐가 있어? 어디서 가서, 그저 빌리는데 또 있어? 그러니 그릇제 해놨어. 그릇 말고도 천막. 천막했어. 그 잔치 때 천막도 필요하니까.(J)

J는 홀어멍들과 함께 제를 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하다보니 일곱명 중 혼자만 ‘아방 이신 어멍’이었다. 그러자 또 다른 ‘아방 이신 어멍’은 어떻게 그런 계를 하냐며 ‘홀어멍’과 ‘아방 이신 어멍’을 구분 짓는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홀어멍’과 ‘아방 이신 어멍’ 사이에 형성되었던 미묘한 긴장관계가 일을 함께 하는 데에도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J는 남편이 있는 자신이 홀어멍에게 상처를 줄까봐 행동을 조심하려 애쓰며 쉽게 홀어멍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35] 하지만 그렇다고 ‘아방 이신 어멍’으로서 고립된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 조심스러움도 있었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들은 하면서 살아야했기 때문이다.

35)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후 2) 복수의 연대에서 다루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J를 비롯한 호미마을의 여성들은 아기들을 잘 키워달라고 제를 지내는 모임도 만들고, 잔치가 있을 때 필요한 대량의 그릇과 천막을 사용하기 위해 그릇제와 천막제를 만들어 운용했다. 잔치라 표현되는 관혼상제의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웃들과의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난 그렇게 말했지. 노인회장 각시한테. 이렇게 음식들 하면, 영훈이 어멍 챙겨주고, 안에 들여다보고 해라. 딴 사람들은 몰라도 거기는 가서 봐야할 거. 그러니 "딴 데도 못 가는데 거기만 왜 갑니까?" 하더라고. 그래도 가서 봐야 할 거주게. 어려운 때에 부녀회장 하면서 사람들 돌보고 고생한 사람인데. (D)

이북 어멍을 돕던 영훈이 어멍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이웃집 아이 D는 시간이 흘러 이제 어른이 되었다. 영훈이 어멍은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혼자서 살았다. D은 노인회장 각시에게 영훈이 어멍을 챙기고 꾸준히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인도 이웃으로서 수시로 영훈이 어멍 집을 드나들면서 관계를 맺어왔다. D 생각에는 영훈이 어멍이 '독한 할망'일지언정 마을 사람들에게 기여한 바가 컸다. 영훈이 어멍은 이북 어멍을 돕는 일처럼 일상적인 부분부터 4·3과 관련된 많은 자리에 찾아다니며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도 해왔다. 그렇기에 자신을 비롯한 그 아랫세대들이 영훈이 어멍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D의 이야기는 이들의 네트워크 속 지원이 개인과 개인의 연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영훈이 어멍이 나서서 이북 어멍을 돕던 일을 비롯해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은 강하게 기억되어 이후 D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D가 영훈이 어멍이 나이든 이후에도 그가 해온 기여가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 영훈이 어멍의 돌봄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였다. D가 원하는 만큼의 돌봄이 이후 노인회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례는 이웃 간의 지원과 돌봄은 아랫세대에게도 이어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마을 네트워크

호미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호미마을'이라는 마을의 정체성이 강하다. 옛날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호미마을 간이학교가 먼저였고, 그 때는 해변 마을에서도 호미마을까지 걸어와서 학교를 다녔다느니, 여느 행사에 가도 호미마을 청년들이 싱싱하고, 힘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다른 마을 사람들을 다 이겼다느니, 마음이 잘도 좋아 분란이 없고 모두가 잘 지낸다느니 하는 언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마을에 희사하는 문화와 분위기 역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대부분의 마을에는 유지 층이 마을에 했던 기부의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큰 호미마을도 마찬가지다. 기부의 원인을 단순한 마을에 대한 자부심으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에 대한 자부심, 고향에 대한 애착, 개인적 욕구 등이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형편이 좋았던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내어놓았던 마음과, 그로 인해 실제 마을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안성식이가 일본 강 도깨비 장사하고 호미마을오난 전기 해주고. 경허난 전기 걸고. 그 사람이 막 호미마을 살게 만들었어. 나중에 신흥 가서 살아났주게(Y).

> 전기를 걸어가는디 이제 우리 안씨가 걸어부니까. 일본 하르방인디, 전기랑…, 수도도 관계가 있을 거라. 잘 살 때니. 아들이 네 성제고 일본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4·3 아주 전에 일본 어떻게 간. 그 뭐 나도 잘 모르지만 듣기에 일본에서 돼지머리로 술안주 해서 돈을 억수로 번거라. 아들들은 잘 안 되었어. 하르방은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렇게 모든 백성을 잘 살폈신디. (N)

> 우리 셋고모 시아버님이 호미마을 안씨 집안 아들이라. 그런데 족은 할망의 씨라. 그것이. 안성익이라고. 그런디 여기서 방상이 제사 하는 것이 전부 맡아서 배우고 신흥이란데 내려갔어. 안성익이 일등 부자로 거기 살면서 각시 둘, 큰 할망한테 오누이, 족은 할망한테 오누이 얻었는데, 큰 할망네 아기가 원 아니되어. 족은 할망네 아기는 일본 가서 막 잘 벌었어. 호미마을 전기도 그 사람이 해줬어. 그런데 이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잘 아니 된 모양이라. 게난 그 사람이 호미마을에 돈 뿌린 것도…. (J)

호미마을에 전기 걸어준 그거는 안성식씨라고, 10년 살안 일본가가지고 포목장사했어. 그래서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전기 사업할 때 그 사람이 전기 걸어줬지. 그러니 안댁이 최고주. 호미마을에서는 뭐니뭐니해도. (R)

호미마을 마을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일본에 가서 번 돈으로 마을에 지속적으로 기부해왔던 안성식이다. 특히 안성식의 전기가설은 호미마을 사람들 입에서 항상 회자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저… 초등학교에 고씨 하르방이 먼물깍, 가는디 저 학교 오름이영 해영 삼만평을 내놘. 나라에, 교육청에. 그렇게 내놓으난, 교육청에서 와서 수리를 해여, 마당에 운동장에 타일 같은 걸 깔아가길래 한 번 물어봤지. “어떵 해난 우리 학교 폐교허난” 물어보니까, “호미마을초등학교는 뭐니뭐니 해도 폐교 못시킵니다. 호미마을에 고씨 하르방이 삼만평 내놨으니까.” 같은 고씨지만 우리 집안은 아니.
학교 오름 내놔부난, 교육청에서 폐교 못시킨댄 합니다. 하고. 먼물깍 가는 길 그 옆 꺼 다. 호미마을 분교 초등학교에 학교 오름이주게. 그래서, 비석에 딱 있주. 그게. 옛날 비석에. 고씨 하르방이 이디 다 내놓은 거 있잰. 적어 놨주. 호미마을 고씨 하르방들이 호미마을을 땡겨오잰. (D)

호미마을학교 4·3 사건 후에 우리 하르방이 지었어. 그 학교 지으려 하니 밭 2개 팔고. 팔아야주. 돈 없는데. 마을 사람들도 돈 나올 것이 있겠어? 뭐 때도 굶는디. 참 고생들 해 살았어. 아이고, 아이고. (J).

불탔던 호미마을의 학교가 재건되면서 호미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짓는데 기부한다. 함덕보다 더 먼저 생겼던 호미마을 간이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학교를 다시 짓는 데에도 작용한다. 학교 재건에는 마을 사람들의 금전적 기부도 있었지만, 노동 기부도 있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에 대한 애착은 지금 현재에도 60-80대 호미마을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배움의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던 것이 한으로 남았기 때문에, 자식을 비롯한 이후 호미마을의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기부자의 이름은 언제나 남성이 가구의 대표로 표기되기 때문에 실제 여성들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지만, 기부에는 학교 재건에 대한 여성들의 마음 역시 함께 들어있다.

3. 이합집산되는 복수(複數)의 연대

위에서 나누어 살펴본 네트워크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연대와 하나의 대상만을 상정케 한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네트워크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다종다양한 연대가 형성되고 해체되기를 반복한다. 호미마을의 여성들은 다종다양한 연대을 조직하고, 관리하면서 활용함으로써 4·3 이후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1) 일본으로 밀항 다녀온 R과 호미마을에 남은 S 사례

R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4·3 이전에 도일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니와 누나는 일본에 남고, 아버지만 R을 데리고 귀향한다. 그리고 족은 각시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R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일어난 학살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이후 예비 검속에 걸려 주정공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남은 가족들은 전략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루는 R의 작은 어머니와 친하게 지냈던 J가 R의 족은 어머니에게 잡혀간 남편에게 속옷이라도 넣어주러 가자고 제안한다. J의 남편 역시 예비검속으로 끌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R의 족은 어머니는 싫다고 거절하면서 차라리 산에서 데리러 오면 산에 가겠다 말한다. 화들짝 놀란 J는 미친 소리하지 말라며 화를 내지만, 그 발언을 들은 경찰은 R의 족은 어머니와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을 바로 잡아간다. 잡혀간 두 여성은 돌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지 않았고, 그리고 예비검속으로 잡혀있던 R의 아버지 역시 이로 인해 죽임 당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한 순간에 죽고, 충격 받은 할머니는 정신이 나가 쓰러져 일주일만에 돌아가셨다. 남은 할아버지, R, 누이동생은 살아야 했다. 4·3 이전 부자집이었던 R 집안에는 땅과 같은 재산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당시 이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너무 어려운 시절이라 다른 친족들이 도움을 주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주로 글을 읽으며 지냈던 할아버지는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다. 결국 누이동생은 목포에 식모살이를 떠나고, R은 보육원에 몸을 의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육원살이는 거절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둘이 주위의 도움을 조금씩 받으며 어렵게 삶을 이어갔다. 그래도 땅이 있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이웃마을의 S와 결혼한다. 하지만 생활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다. 어려운 생활을 타개하기 위해 R은 일본 밀항을 결정한다. 일본에 어머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다. 혼자 떠난 것은 아니었고, 당시 호미마을에서 R 또래의 남성 10여명이 일본으로 나갔다고 한다.

R의 도일은 복수의 관계와 연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직계 관계인 어머니가 일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일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R이 일본에 가면 호미마을에는 S가 혼자서 자식 넷과 함께 살아야 했다. R은 걱정 되는 요소였던 제사를 줄이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S는 죄를 짓는 것 같아 제사를 줄이는 것이 망설여졌고, 이웃에 사는 친족이 그렇다면 자신이 제사를 일부 나누어 가져가겠노라 나선다. 그리고 R은 일본으로 떠난다. R과 함께 10여명의 또래 남성들이 함께 도일했기 때문에, 호미마을에는 S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집단이 형성되었다. S는 그들과 같이 수눌고, 일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그리고 R이 일본에서 종종 보내주는 일제 물품들은 S를 거쳐 친족들에게도 전해졌다. 10년 뒤 일본에서 돌아온 R은 밭을 하나 구입할 수 있었다.

생활고 타개를 위해 S-R 부부는 남편의 도일을 결정했다. R은 10여년의 일본 생활을, S는 호미마을에서 10년의 혼자 가족을 부양해왔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일본에 있던 어머니 친족관계', 제사 공동체인 '호미마을의 친족관계', 그리고 '함께 밀항 갔던 남성 그룹', '같은 밀항자 부인들', '이웃들과 함께 했던 제' 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복수의 연대 때문이었다. 이 사례를 통해 의도적/우연적으로 형성된 다종다양한 연대를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고, 관리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다.

2) 대립되는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N의 사례

N의 삶은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복잡함 속에 있으며, 실제로 마을의 구성원들이 복잡다단한 관계를 활용해 경계를 오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N은 '족은 각시'의 자식이다. 아버지의 큰 각시는 아버지와 이혼해 친정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족은 각시인 N의 어머니와 혼인관계를 이뤘고, N의 어머니는 N을 맏이로 이후 두 명의 남동생을 낳았다.

N은 '부씨'이다. 4·3 당시 부씨는 동백동산 벌채 사건을 통해 군경·군인의 손을 잡았다. 무장대 쪽에 섰던 마을 유지층이 몰락하고, 이후의 변화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부씨는 새롭게 부상해 번성하게 되었다.

N의 큰 어머니와 남편은 '안씨'이다. '안씨'는 4·3 이전 호미마을의 유지였다. 하지만 '산사람'을 지지하면서 몰락했고, 4·3 이후 조금씩 마을을 떠났다. 그럼에도 일본으로 도일한 많은 안씨 집안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마을 시설 개설에 도움을 주었다.

N은 '아방 이신 어멍'이다. 그녀는 4·3 직후 마을로 돌아와 혼인했다.

N은 혼인 후 7년을 혼자 살았다. 남편은 혼인한지 일주일만에 입대했고, 7년 뒤에 돌아왔다.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함께 하기는커녕 재산을 사용하기만 했다.

N은 '호미마을'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많은 대립항의 경계에 걸쳐져 있다. 마을에서 소위 '무장대'와 '토벌대'의 대립으로 여겨지는 '안씨'와 '부씨'의 대립에서도, '홀어멍'과 '아방 이신 어멍'의 경계에서도, '큰 각시'와 '족은 각시'의 갈등 구조에서도 경계에 서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뒤섞인 정체성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활용한다. 이 활용은 그녀가 알고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의 측면과, 그녀가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마을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연대 속에서 보호되고 활용되는 측면이 공존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경찰 · 군인과 가까웠던 터라 '부씨'는 4 · 3 초기에 산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다. N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N은 산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구들에 사촌언니들과 숨어있고, 산사람이 총을 겨누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부씨인 아버지와 이혼한 큰 각시는 '안씨' 집안이었다. N의 아버지가 안씨 집안의 여성과 연이 있었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봐줘서 N의 아버지가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N은 이야기한다.

그와 동시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N의 아버지와 큰 어머니 사이에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제주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산 사람들은, 그를 데려오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 N의 이복오빠는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11월 말, 마을이 불타고 소개령이 떨어지고, 마을 사람들이 동굴로 숨어들었던 그 때, 같이 동굴에 숨었다가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또한 N은 4 · 3 이후, 마을로 돌아와 '안씨 집안' 남자와 혼인을 한다. N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부씨 집안이 호미마을에서 최고라놨는데.' 라는 부씨 집안 정체성을 갖고 있고 본인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곤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을에 전기를 걸고 수도를 거는데 이바지했던 안씨 이야기를 하면서는 남편의 가문인 '우리 안씨'를 강조한다.

4 · 3 시기이자 혼인 이전, 아버지는 큰 어머니 덕에 살아남았지만 고령이었기에 남성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력이 되지는 못하지만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남성 노동력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노동력을 빌지 못해 그 많은 밭을 자신이 다 골갱이로 부숴서 갈아가면서, 일했다.

그녀는 남편이 있었고, 남편은 몰살한 친족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제월전은 받았지만, 16번 되는 제사 · 명절 수행이 따라왔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 후 일주일만에 제사만 남겨놓고 군인생활을 떠난다. 7년간의 군인생활 끝에 돌아온 남편은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정신적 · 경제적 의지처가 되지 못했다. 돌아왔지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 모르게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갔다. 1970년, 밀감 농사가 시작되었고, 호미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먹고 살만해진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N이 밀감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에 집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계집아이라 글을 배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모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N은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밀감 판매 대금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고, N이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이전에는 농사지은 곡식은 직접 조천장에 가서 팔고 오면 아이들 물건이나, 식량을 살 수 있었지만, 밀감 농사 이후에는 돈을 볼 수 없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노동 시장에 뛰어든다. "자기 농사 짓는 거지, 옛날에는 남의 일 하는 건 좀 안 좋게 봤지." 라고 말했던 그녀가 이웃과 친족의 일에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다시 생활비와 자식 교육비를 벌 수 있었다.

N의 삶은 여러 집단과 연대에 걸쳐져 있었다. 이 집단은 상황에 따라 어떤 때에는 억압이, 어떤 때에는 고난의 타개책이 되어주었고, 이 다양한 집단의 이합집산과 경계 속에서 N은 이를 활용하면서 살아왔다.

N은 여전히 J를 가리키며 말한다. "저 할망은 4·3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이만큼도 없는 할망."이라고. J는 산사람 안씨와 사돈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또 다른 마을 유지층이었던 고씨였고, 특히 '산에 많이 해다 올린 집'이었다. J의 남편은 산에 떡을 해서 올리다 토벌대에게 걸려 몰살당한 집에 양자가 되어, 이를 토대로 마을의 신흥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토벌대의 학살이 시작된 것이라 보는 사람들은 이들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다.

'경찰' 집안이었던 부씨인 N에게는 여전히 산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총을 겨눌 때 방에 숨어서 사촌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부씨 친족들의 죽음 역시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N이 J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정치적 입지까지 뒤섞여 있는 복잡다단한 네트워크 속에서 그들은 "그 할망은 4·3에 대해 말할 자격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하면서도 노인정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를 찾고, 안위를 챙긴다.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고, 온갖 험한 꼴을 다 겪었던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배척했던 동시에, 함께 그릇제를 하고 서로의 잔치에 부주를 했던, 마을의 사건 사고를 함께 겪어온 동지였다. 산산조각난 기존의 네트워크 속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폭력을 겪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된 이웃이었기 때문이다. 70년이라는 세월은 마을 내 관계들을 훨씬 복합적으로 만들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다수의 홀어멍들 사이에서 소수자였던 J의 사례

J의 사례는 비극이 사람이 갖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4·3의 영향은 J에게는 전형적 4·3 피해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죽음당한 많은 이들은 수치로 이야기되는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가족이자 친족이고, 이웃이며 친구였다. 마을에서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수치의 피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촘촘하게 연결된 그물망 속에서, 사자(死者)는 살아남은 자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삶에 끝나지 않은 채로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죽음과 자신의 삶에 책임을 느끼며 살아갔다.

이러한 배경은 마을에서 구체적 형태로 구현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폭력의 후유증, 살아남은 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은 마을 사람들의 관계성에 작용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했다. 이는 다수의 생존자인 여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J의 인간관계는 이 영향력 하에 복잡한 층위로 얽히게 되었다.

> 그 4·3사건에 산 사람이 그 하르방하고... 이디 진표 있지? 그 하르방이 저 산에 이제 숨었어. 머리가 이까지 하고 숨언. 혼자 살안. (…중략…) 너무 나쁘지 않아? 지만 숨언. (N)

살아남은 남성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던 듯하다. N은 자기만 숨어서 살아남은 남성에 대해 좋지 않게 표현했다. N의 표현은 N 외에도 혼자 숨어 살아남은 남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마을 내에서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생존은 산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숨어 살아남은 젊은 남성은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인명 피해가 컸던 호미마을의 생존자들은 직계가족의 죽음을 겪지는 않았어도 모두 가족, 친족, 친구, 이웃을 잃은 4·3 피해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던 거대한 폭력과 함부로 원망하고 표현할 수 없었던 국가권력 대신, 쉽게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고 눈앞에 잡히는 실체인 살아남은 남성은 그 대상이 되었다. 그의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살아남은 남성이 이후 재산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모아가고, 권력을 쌓아갈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원망의 대상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존 남성이 이후 재산축적에 성공하거나 잘 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망의 화살은 주로 J 부부에게 쏟아졌다.

> 홀어멍들 일을 못 구하면 아무래도 토라지니까. 부아가 나는 게…. 아무래도 죽은 사람 생각도 나고….
> 고생행 살던 사람도, 이제는 나랑 동갑에 아이인디 미자 어멍이라고 원. 막 집이 이 방만이 못 헌디, 일생을 살당 아들들이 벌어 큰 집도 짓고. 막 참 잘됐주게. (J)

일 못한 사람들이 토라졌다는 J의 말처럼, '홀어멍'의 원망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하는 '일'과 관련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자가 있는 집은 좋았주게. (…) 억울할 뿐이라."[36]라는 홀어멍의 말처럼 불공평한 수눌음은 억울한 일이었다. 하지만 억울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집'에 잘 보이려 애쓰기도 한다.

> (면담자 : 그럼 사이가 별로 안 좋았겠네요? 남편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좋지 아니할게 아니고, 더 가서 일해주고. 살려서 밭이라도 빌엉 갈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얻고. 경해서 살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남자를 빌어 일하려고 하면, 일을. 거기에 강 많이 해주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했지. (N)

일을 구하기 위해 잘 보이려 애썼던 '홀어멍'들이 일을 구하지 못했을 때 화를 내고, 토라지는 것은 J에게도 불편한 일이었다.

---

36) "남자가 있는 집은 좋았주게. 좋음으로 말이라. 여자만 있는 집보단 아무래도 낫주게. 남자가 없어노난 남자 빌기도 어려웠지만 그 사람 빌면 때에 맞춰 그거(수눌음 값) 물져 허노랜 허민(물어주려고 하면) 뭐 해져? 이녁 것도 똑바로 못허주게. 경해도 그 사람네 꺼 물어야주게. 경허며 이제까지 살았주. 아이고, 아이고. 억울헐 뿐이라. 억울하고 말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했주만, 소랑 사람값이랑 한 번 빌리면 닷새씩 대신 해야 하니 그게 억울하지." 홀어멍의 증언을 빌려왔다(이정주, 1999; 2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니 홀어멍들 앞에서 난 하하하 웃어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흉봐. 세진이 어멍(J를 가리키는 말)은 남 보면 인사도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한대. 우리 시어멍이 그 말을 듣고 와서 날 보고 "아무 사람네 봐지면 인사하고 같이 놀고 하라." 하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어?

홀어멍들한테 (내가) 뭐라 좔좔 말하면, 캬하하 웃으면, 그 사람들 속아프다. 하르방이랑 나랑 어디 갈 때도 떨어져 가다가 멀리서 만나서 같이 갔어. 무서워서. 다 혼자 남은 사람들 아니? (J)

J는 홀어멍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갖고 살았다. 그들 부부의 존재가 홀어멍에게 죽은 사람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J는 자신이 홀어멍들에게 죽은 사람을 상기시키는 존재임을 신경 쓰고 있었다. 학살 이후, '산 자'가 '사자(死者)'에게 갖는 죄책감과 부채감 뿐만 아니라 '산 자'가 '산 자'에게 갖는 죄책감과 부채감도 존재했다. J는 홀어멍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홀어멍들이 자신에게 취했던 태도에 대한 원망을 내비치면서도 매번 이야기의 끝은 "홀어멍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홀어멍들이 잘 되어서 다행이다."로 맺었다. 이는 죄책감, 부채감을 털어내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험난한 시기를 고생하며 살아온 같은 여성이기에 할 수 있는 공감이기도 하다. 아방 이신 어멍이었던 J의 마음 속에는 4·3이 만들어낸 홀어멍과의 편치 않은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과 홀어멍이 겪었던 수난, 고생에 대한 공감이 공존하고 있었다.[37]

J는 주위의 시샘을 비롯한 여러 감정들이 불편하고 자신 역시 그 부정적 감정을 온전히 받기에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해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홀어멍을 비롯한 다른 여성들보다 상황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돈 빌려간 사람들 안 갚아도 뭐라 안했다. 받지 않았어." 라는 말은 J 자신이 할 수 있었던, 4·3의 고난을 함께 겪었던 이웃이자 동지에 대한 일종의 도의(道意)였다.

37) 하지만 모든 '아방 이신 어멍'과 '홀어멍'이 이런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J의 남편 또래의 생존 남성은 5명이었는데, J의 남편을 제외한 4명의 남성은 J의 남성처럼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아방 이신 어멍에게는 '경쟁'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른 여성들이랑) 힘을 합치질 못해. 난 영감 있으니까. 어디 나가지 도 못 허고. 그 기계하고 밭 일꾼 빌어 가고. 사는 아이들 일 시키고 하당 보민…. 절대로. (J)

J은 자신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지도 모르는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기보다 다른 관계를 일상의 관계로 선택한다.

공장에 일하러 다른 동네에서 아이들 많이 빌어오고. 다른 동네에서 들어와. 육지 아이가 오기도 하고. 울산 아이, 목포 아이도 오고. 다니면서 얻어 먹는다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 와서 살다 가고 하는 아이들 세어보니 열 몇 개라. 왔다 간 아이들이. 그 아이들 돌아가서 다 잘되었으면 좋을 건데 잘 되었나 몰라…. (J)

남편이 벌이는 여러 사업으로 인해 J는 공장을 관리하고 집안의 아이들을 키우는 강도 높은 노동 속에서 살았다. 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호미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 집의 밭일을 기본으로 해왔기 때문에 타지의 사람들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타지가 고향이지만 생활이 어려워 떠돌아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J는 그런 이들과 함께 공장일을 하고, 집안일을 해나갔다. 남편은 주로 바깥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을 계속 해왔지만 J 일상의 대부분은 마을 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보다는 집안일, 공장일, 기계, 일꾼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아예 마을과의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고, 친족들이 마을에 있었다. 마을의 일들은 여전히 함께 하고 그릇제, 천막제, 칠성제 등 자신이 필요한 관계들은 여전히 관리하고, 홀어멍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일을 준다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도 모르는 척 한다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소하면서, 일상의 시간은 또 공장을 운영하고 일하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이는 4·3이 만든 복잡 미묘한 사회적 관계에 처했던 J가 택한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Ⅵ. 결론

‘4·3의 피해자’ 라는 명명에서 누구나 쉽게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연상할 수 있다. 4·3 당시 수많은 사람들, 특히 폭도로 몰린 많은 남성들이 죽임당했고, 살아남은 그들의 부인은 힘겹지만 꿋꿋하게 일상을 영위하며 현재의 제주사회를 재건해냈다. 이와 같은 ‘홀어멍 서사’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다. 홀어멍은 4·3 여성의 대표 사례로, 전쟁과 여성, 마을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 홀어멍 서사의 구축에는, 호미마을 연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에 의해 홀어멍의 특징이 정리되었고, 구축된 ‘홀어멍’의 표상은 부유하며 산자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후의 연구, 대중 매체, ‘4·3 장한 어머니상’과 같은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힘을 갖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4·3 피해 부각 측면에서 이루어진, 4·3 당시의 수많은 남성 인명피해와 그들의 생존 부인 구도로 형성된 홀어멍의 발견은 마을 안 여성들을 ‘남편의 유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이루어졌다. ‘핵가족-정상가족 모델’은 ‘남편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데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가족의 상실을 메웠던 다양한 친족들의 연결망과, ‘핵가족-정상가족’ 모델로 이야기될 수 없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비가시화했다.

이는 지금까지 4·3 여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 중요시되던 ‘홀어멍’의 프레임을 보다 더 발전시켜야할 필요를 요구한다. 수난 서사에서 나아가 ‘핵가족-정상가족’ 모델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가족·친족의 돌봄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 유족 인정, 배·보상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현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생활세계에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홀어멍’이라는 명칭은 명확한 구분 아래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마을내혼으로 이루어져 여러 겹의 친족관계로 둘러싸여있던 마을에서 홀어멍인 ○○○은,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어멍이었으며, 누군가의 형제·자매, 누군가의 조카였다. 그들은 ○○○을 지칭할 때, 홀어멍으로만 지칭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는 홀어멍으로, 어느 순간에는 ○○ 어멍으로, 또 어느 순간에는 ○○ 딸로 그들을 칭하곤 했다. 호미마을 사람들은 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황과 맥락에 걸맞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관계를 맺었고, 그것을 자원으로 삼아 만들어진 수많은 연대 속에서 살아왔다. 4·3 폭력이 지나가고 엉망으로 무너진 마을에서 다종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상을 재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편을 잃었던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친족과 이웃,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지원해왔기 때문에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4·3이라는 고난을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리하고 동원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으며, 연대의 지형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강정원, 이도정, “무연고묘와 죽음권”,『서울민속학(4)』, 2017.

고성만, “4·3 과거청산과 ‘희생자’-재구성되는 죽음에 대한 재고”, 『탐라문화』 38호, 2011.

권귀숙, "4·3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4·3 영상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연구』, 43권 2호, 2004.

권귀숙,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제주 4·3의 생애사", 『4·3과 역사』 11호. 2011.

_____,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젠더 연구", 『耽羅文化』 45호. 2014.

김경호,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담론과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성찰, 『민족문화연구』, 2020.

김미영, “조상제사, 누가 모셔야 하는가”,『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 민속원, 2012.

김성례,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한국여성학』, 7호, 1991.

_____,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 제주 4·3 학살을 중심으로", 『흔적』, 2호, 2001.

김성례·유철인·김은실·김창민·고창훈·김석준, "제주 4·3의 경험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韓國文化人類學』, 34권 1호, 2001.

김순홍, 『게난 몬딱 고생한 얘기주』, 주식회사 꿈틀, 2018, 66쪽.

김옥자, 『곤밥 한 숟가락』, 주식회사 꿈틀, 2018.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은실, "4·3 홀어멍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49권 3호, 2016.

김은실, "국가폭력과 여성: 죽음정치의 장으로서의 4·3", 『4·3과 평화』 18호, 2018.

김창민,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역락, 2000.

_____, 『호적중초와 19세기 후반 제주도 마을의 사회구조』, 2020.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궨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박상란, "제주 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각시",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45호, 2018.

백영경,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서울대 공익인권 클리닉:구술사 증언팀(강민구 외), “4·3 집단학살 마을의 공간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구성과 서브알턴들의 목소리 : A리 조사에 대한 포스트-식민 이론적 해석", 『공익과 인권』, 12호, 2012.
서지영, "식민지 시기 일본 공장으로 간 제주 여성", 『비교한국학』, 18(3), 2010
안미정, "오사카 재일 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탐라문화』, 32호, 2008.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2.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문화와 비평사, 1999.
유철인, "구술된 경험 읽기 : 제주4·3 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韓國文化人類學』 37권 1호. 2004.
윤택림, 『역사와 기록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19.
이령경, "한국전쟁전후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경험연구: 여성주의 평화개념에서",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03.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 한국 근대가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2003.
이재은,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이정숙, "제주 4·3 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4.
이정주, "제주 '호미' 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_____, "4·3 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 『濟州學會』, 17권 0호, 2000.
이지치 노리코, 『일본인학자가 본 제주인의 삶』, 경인문화사, 2013.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1999.
전미경,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 신문과 신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2001.
정진희, "제주도 무속신화 <문전본풀이>의 가부장제와 '어머니로 살기'", 『국문학연구』, 35호, 201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제주4·3연구소 엮음, 『_____(증언집)』, 제주 평화재단, 2015.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도서출판 각, 20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추가진상조사보고서1』, 2019.

제주여민회, 『제주여성 4·3의 기억Ⅰ, Ⅱ, Ⅲ』, 제주 고령여성 4·3 구술채록 작업결과공유회 자료집, 2017-2019.

진관훈,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20호, 1999.

차선자, “가족관계 형성에서 혈연이 가지는 의미”, 『인권과 정의』no. 406, 2010.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최길성,『한국인의 조상숭배와 효』, 민속원, 2010,

하명실, “제주도 하귀마을의 4·3 경험과 치유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림화, "‘제주4·3사건’진행 시 제주여성사회의 수난과 극복사례-졸저 <한라산의 노을> 집필 전 자료수집 노트를 펼쳐보니", 『역사의 상처, 문학의 치유』, 제주4·3항쟁 70주년 전국문학인 제주대회 4·3문학 세미나 자료집, 2018.

함한희,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 연구』제 1권 1호, 2010a.

_____, "증언, 생활사, 구술사: 기억의 구술과 역사 4·3의 경험과 재일제주인, 그리고 한국현대사", 『4·3과 역사』, 10권, 2010b.

허영선,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겠지만』, 마음의 숲, 2019.

현혜경·김석윤·허유순, “제주 4·3사건 직계부재 희생자에 대한 방계혈족의 기념의례와 인정투쟁”, 『민주주의와 인권』, 20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discuss the life stories of women on the Jeju Island that had to live in gender imbalance prevalent around the island after a huge number of men died in April 3 Uprising of Jeju. The deformed gender imbalance caused comprehensive changes to the Homi Village. As the lives of "Holemeongs," who lost their husbands in the uprising and formed a majority of women in the village, were put in the spotlight, they had been cited as representative cases of women and their experiences in the wake of the uprising. Once the category of "Holemeongs" was created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presence and absence of husband," the lives of women outside the category became invisible. In addition, "Holeomeong," which is a title of variability, was homogenized into a single experience.

In the Homi Village, women had to suffer many different ordeals and pain in the extreme gender imbalance phenomenon. Some forms of pain received a spotlight as they were revealed abruptly after the April 3 Uprising of Jeju, whereas others were considered to be constant in family relationships and were not exposed. Women suffered agony in the village in the entangled marriage relations brought by the gender imbalance phenomenon.

Their lives, however, did not end in hardship and ordeals. The women of Homi Village made use of networks of various kinds and types within the village to overcome their hardship. They had various networks including the relative network even though they became invisible due to the concept of nuclear family and were able to survive after the uprising by creating, managing and mobilizing networks of various kinds and types.

• Keywords: after April 3 Uprising of Jeju, gender imbalance, network, Holemeong, Abang Ishin Emeong, Homi Vill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